

連記界

第二號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目 次

激 勵 辭.....	會 長 崔 致 煥	1
國會的 速記業務概況	國會速記課長 劉 龍 珪	2
내가 바라는 速記士像.....	國會文公委專門委員 任 哲 淳	5

第 1 回 資格檢定試驗	韓 鍾 烈	8
第 1 回 競技大會	申 世 華	11

◆ 受賞有感	高 太 仲	13
會議錄作成上の 問題點	柳 炳 星	15
手當引上の 뒤안길	李 東 一	17
《르포》祥明女高 篇.....	梁 源 龍	18
英文速記의 展望	盧 英 民	20
□ 등산과 精神勞動.....	崔 錫 模	22
□ 낚시와 精神勞動.....	金 允 洙	24
< 特別寄稿 >		
速記와 나 (下).....	張 基 泰	26
外國速記界視察記 (下)	鄭 源 道	29
速記國人記 (上)	姜 駿 遠	33
隨 울안의 MT會	K 生	36
筆 人 間.....	Y 生	37
◆ 速記料金表案內		38
◆ 會務日誌	總 務 部	39

歷史는 記錄이다



=第1回 全國 速記競技大會 施賞式에서=

會長 崔 致 煥

우리나라 議政史上 빛나는 功績을 가지고 계신 權孝燮局長 그리고 速記協會 幹部들을 모신 가운데 오늘 第1回 全國速記 競技大會의 施賞式을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祝賀합니다.

韓國社會의 모든 分野를 돌아 볼때 1970年代를 맞이해서 祖國 近代化라는 旗幟를 내걸고 힘찬 巨步를 내딛고 있는 此際 우리 大韓速記協會에서 記錄 報國의 자세를 가다듬고 速記士의 量과 質을 向上시키기 위해 本行事를 마련했다는 것 은 實로 時宜適切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議會史가 日淺합니다마는 그동안 民主主義의 기틀을 굳건히 다졌고 앞으로 無限히 發展될 것임을 疑心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國會안에서 國民의代辯者인 選 良들의 一舉一動을 正確하게 國民에게 傳達해 주는 동시 韓國의 民主憲政史를 엮어 나 가는 여러 速記人들의 пам홀리는 勞苦를 再認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歷史를 냉철히 分析해 보면 單純한 時間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흐름의 記錄입니다. 어느 때에는 어두운 面으로 歷史가 展開되어 戰爭이나 經濟恐慌이 있었고 어느 때에는 밝은 面의 繁榮과 太平聖代를 謳歌합니다. 이러한 時代의 흐름과 交叉點을 記錄해서 當代 또는 後世에서 批判을 하는 까닭에 國政을 맡은 責任者들은 항상 國民에게 甚大한 影響을 미치는 記錄의 重大性을 外面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모든 國會議員들은 國家의 장래를 가름하는 法案의 審議를 對할 때 높은 責任 感과 矜持를 갖고 任해야 한다면 이것을 지켜보고 記錄하는 여러 速記人들도 마찬가지라 고 생각합니다.

速記人 여러분의 한 線 한 點이야말로 永久한 實 證據가 되는 것이며 現在와 未來를 連結시키는 교량의 役割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速記士의 活動을 陰地에서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陽地쪽에서 議會 史를 記錄하는 國家의 棟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過去 10餘年間 議員生活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歷史的 證人으로서의 여러분에 대한 나의 생각은 切實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榮譽의 施賞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競技大會를 계속해서 正確한 議會史定立에 커다란 貢獻이 되기를 바라며 會員 相互간의 親睦圖謀에 이바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致辭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國會議員)

國會的速記業務概況

國會速記課長 劉 龍 珪

1. 序 言
2. 業務의 特殊性
 - ① 時間의 制約
 - ② 言語의 文章化
3. 會記錄의 發行 過程
 - ① 速記
 - ② 編輯 및 校正
4. 結 言

1. 序 言

國會는 國會法 第64條 및 第108條의 規定에 依하여 會議錄을 作成하고 있으며 이 會議錄은 國會의 모든 議事內容은 勿論이 거니와 그와關聯되는 諸般事項을 收錄하고있으며 이 記錄은 議案의 審議議決의 經過와 結果에 對한 證據物이 되며 民主憲政史의 證人이며 발자취로서 子孫萬代에 길이 保存하여야 할 貴重한 史料이며 寶典이다.

이와 같은 會議錄의 發刊業務는 國會의 核心的이고 重要한 業務中의 一面을 차지하고 있다.

如斯한 業務의 重要度와는 달리 때로는 對內對外的인 協調와 理解의 不足으로 많은 隘路와 難關에 逢着하느 수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會議錄의 作成過程과 그 特殊

性을 簡略하나마 널리 對內外的으로 알려 正確하고 迅速한 會議錄發行에 있어서 理解와 協調를 바라면서 速記業務의 至上命題를 解決하고자 한다.

2. 業務의 特殊性

① 時間의 制約

促迫한 時間의 制約을 받는 것이 會議錄發行에 있어서 하나의 特殊性이다.

會議錄은 本會議의 會議錄과 常任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會議錄이 있다.

本會議錄은 會議를 開會한 翌日 午前10時까지 發刊하여야 하며 때로는 各特別委員會會議錄도 翌日 發刊해야 할 境遇도 있다.

本會議는 通常 午後 1時頃에 散會하므로 速記士와 編輯要員이 交代로 夜勤을하면서 會議錄을 發行하고 있으나 豫算決算特別委員會或은 其他委員會가 午後에 會議를 開會하고 翌日 會議錄發行을 要求

할 때는 制限된 人員과 時間으로 因해서 速記士는 國會內에서 徹夜하면서 翻文을 해야하며 編輯委員은 對外印刷所에서 徹夜하면서 編輯하고 校正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與件下에서 發行되고 있는 것이 國會의 會議錄이며 이는 會議錄의 重大性을 痛感하는 速記士와 編輯委員의 獻身的 努力의 結晶이다.



② 言語의 文章化

모든 刊行物이 著者나 筆者가 自己의 思考를 自己가 文章化한 原稿로서 發行되고 있으나 會議錄은 發言者와 記錄者 即 意思를 發表하는 者와 文章化하는 者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또 하나의 特殊性이다.

發言者는 記錄者인 速記士를 念頭に 두고 正確한 發言으로 洗鍊된 言語만을 驅使하는 것이 아니고 各種사투리, 不分明한 發言, 興奮한 熱辯, 外來語의 驅使 漢文文章의 引用, 特殊部門의 專門 述語 等等 各樣各態의 發言이 많으므로 記錄하는 速記士나 編輯校正에 臨하는 編輯要員이 에배우는 例가 許多한 것이다.

3. 會議錄의 發行過程

① 速記

會議가 始作되면 速記士는 2人이 1組가 되어 會議內容을 符號인 速記文字로서 全部 記錄한다.

2人 1組는 主務와 副務로 構成하여 同一事項을 同時에 記錄한다. 이것은 相互間 能力의 切長補短을 通하여 記錄의 萬全을 期하게 하기 爲한 것이다.

1組의 記錄時間은 本會議는 10分間씩이며 各委員會는 20分間씩 記錄하고 他組와 交替한다.

交替한 速記士는 速記文字로 된 記錄을 一般文章으로 翻文하는바 翻文時間은 記錄時間의 12倍를 標準으로 하고 있다.

即 10分間의 會議內容을 速記하면 2時間의 翻文時間이 所要되는 것이다.

翻文이 끝나면 速記原文과 對照하여 修正事項이 있으면 다시 修正한다. 이것을 다시 係長級에서 確認하고 前組와 後組와

의 連結을 檢討하며 脫字誤字를 바로 잡는다.

翻文過程에서 疑心이 생기거나 不正確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資料等에 依하여 確認하거나 發言者에게 問議하는 等으로 萬全을 期하기 爲하여 最善을 다하고 있음은 勿論이다.

速記라하면 他技術과는 달리 聽覺, 視覺, 觸覺이 同時에 總動員 되어야 하느니 만큼 年令面에서 젊음을 必要로하고 精神面에서 銳敏하고 健全함을 要求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速記術은 長期間의 修練이 必要하며 該博한 教養과 知識을 갖추어야 할 高度한 技術인 것이다.

이와같은 技術에 依하여 速記되고 翻文된 原稿는 印刷를 爲하여 編輯要員에게 引繼된다.

② 編輯 및 校正

速記士로 부터 引受한 原稿를 編輯要員은 體系를 檢討하고, 內容을 確認하며 綴字法等을 校正하는 同時에 會議錄에 登載하여야 할 會議內容이 아닌 모든 事項을 作成 添付하고 編輯하여야 한다.

이 原稿로서 印刷所에서는 文選하고 組版하게 되는 바 通常的으로 이 時間은 午後 5時頃이 되는 것이며 編輯要員이 校正을 完了하는 校正의 時刻은 밤 11時 以後가 되어 通禁前 歸家를 爲하여 여러 面의 難關을 克服하여야 된다. 이것은 會議가 午後 1時頃에 끝날 境遇이고 午後會議 夜間會議時의 徹夜는 普通之事로 되어 있다.

編輯要員도 速記士의 主務, 副務編成과 같이 組를 編成하고 있으며 校正에 熟練된 者를 組의 責任者로 하여 會議錄內容

과 發行에 充實을 期하게 하고 있다.

印刷가 完了되면 速記士와 編輯要員은 再次 檢討를 實施한다.

即 速記士는 原文과 相違가 없는 가를 檢討하고 編輯要員은 論理解釋, 文章解釋 上에 잘못이 없는가를 檢討한다.

끝으로 業務過程表와 正誤表를 添付하여 係長級에 依한 最終檢討가 이루어지고 決裁를 畢함으로써 會議錄 發行過程은 完了되며 비로소 配付段階에 들어가는 것이다.

會議錄의 配付가 끝나면 會議錄의 保存을 爲하여 이를 製本하고 本會議錄은 國會法 第108條 第32項에 依據 議長 또는 議長을 代理한 副議長 또는 臨時議長과 事務總長 또는 그 代理者가 署名, 捺印하며 委員會 會議錄은 國會法 第64條 第32項에 依據 委員長 또는 委員長을 代理한 幹事가 署名, 捺印하며 이는 永久保存하고 있다.

4. 結 言

以上 概略的으로 國會에서의 速記業務를 列舉하였거니와 會議場에서의 速記에서 부터 原稿作成, 編輯, 校正, 會議錄의 製本, 配付까지의 過程이 매번 되풀이 되는 것 같으면서 順坦하지만은 않은 것이며 때로는 큰 逆境에 부딪치는 境過도 있다.

특히나 國政監査에 速記士가 隨行하여 監査速記를 翻文하면서 本會議 그리고 各委員會의 速記에 動員될 때는 人員의 不足과 時間의 制約으로 悲鳴을 올리는 때 도 있는 것이다.

現在의 業務構成은 速記와 會議錄의 編輯 校正으로 區分되어 있고 人員構成도 速記職인 速記士와 行政職인 編輯要員으로 區分되어 있거니와 將次는 이를 單一化하거나 아니면 編輯校正業務는 別途로 分離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표 주 박 —

點 景

監査하시는 여러 議員들께 간곡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커피가 나오고 쯤빛 紫煙이 주윳 가득 메우고
現況表 넘기는 소리 접는 소리
그리고
근엄한 질책 굳어진 표정 멧진 회유
어두운 곡예가 나레를 편다

心 鄉

마음의 물결 情炎의 설레임
妖妖한 성미나 女人의 타고난 바탕
나는 너의 支柱
간단없는 사랑의 甘露를 들어라
너와 나 이제
새로운 삶을 創造하는거다
난 네게 날 드리겠으니. <在>



내가 바라는 速記士像

國會文公委專門委員 任 哲 淳

사람이란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이 무엇이든 그 나름의 사명감과 긍지를 지니고 있으며 또 지녀야 하겠다. 사명감 없는 직업인은 인간의 操作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기계와 다를 바 없어서 그에게 創造的인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속기사는 시대적 사명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우리 사회와 문화가 소중히 여겨야 할 직업인의 하나라고 본다.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새삼스럽다 하겠으나 속기는 인간의 이상이 높았던 시대에 싹트기 시작했고 또 인간이 존엄시되는 사회에서 빛을 발하였다. 고대에 있어서 가장 民主的이었던 사회인 희랍—로마에서 속기술이 요구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 人類文化의 盛長期인 19세기에 와서 다시 자라나게 되었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人間과 言語, 言語와 文化, 또한 對話와 民主主義가 떼어 수 없는 관계이듯 바로 그 사이에 속기는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認識을 바랄 수 없고 널리 이용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현실인 까닭에 속기사는 자신이 먼저 이 문화에 있어서의 特殊한 위치를 自覺해야 할 뿐만 아니라 啓蒙과 普及이라는 또 하나의 課題를 짊어져야 하므로 그

任務는 더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大韓速記協會를 통하여 속기사들이 힘을 모아 갖가지 사업을 펴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단체와 사업이 구성원들의 투철한 使命意識으로 밀받침되어서 우리 문화의 거대한 한몫을 맡아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흔히 속기의 基本要件으로써 예민한 聽覺과 민첩한 손을 생각하게 된다. 오랜刻苦 끝에 이 才能이 습득된다고 들었다. 속기사들은 첫째로 이 재능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 「스포츠맨」들은 나날이 記錄을 更新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그들의 생활을 일관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는 더 아름다운 音律을 위하여 하루도 연습을 쉬는 날이 없다. 바로 이러한 수련이 속기사들에게 기대된다. 더우기 현대인들의 말인속도는 빨라지고 있는 현상이니 만큼 이러한 노력은 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제한된 시간에 다양스런 사상을 표현하려다 보니 말이 빨라지는 것은 이 시대의 자연적 趨移이다.

속기의 高速化를 위한 方案으로써 속기 문자의 개량에 全速記人들이 힘쓰고 있는 줄 안다. 수련은 언제나 과학적인 연구태도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文明이 제아무리 加速的으로 발달되고 빠른 時間感覺에 쫓겨 인간의 말이 빨라진다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빠뜨리지 않고 태연히 記筆할 수 있는 力量은 시대의 템포에 발맞추어 나가는 속기사의 모습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말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지만 문자화되지 않으면 역사와 문화는 그 연원을 찾고자 할 때에 아무 증거로 남겨놓지 못하고 만다. 이 말의 時空의 制約을 보충해주는 것이 文字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말이든지 더 하거나 덜함이 없이 전달해 주는 것이 速記이다. 우리의 생활이 口語體와 文語體를 구별할 수밖에 없는 한 참다운 言文一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속기 없이 전해지는 말은 文字化될 때에 교묘하게 歪曲되기 쉽고 듣고 전하는 이의 主觀이 끼어들기 쉽지만 속기사는 가장 公正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速記士像은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속기는 문화를 創造하고 역사를 決定하는 嚴肅한 순간마다 필요해 진다. 속기사가 가야 할 곳은 그 분야의 狀況과 未來가 말해지는 곳이다. 이를 錯誤없이 듣고 전달하려면 속기사는 個性과 氣質이 다른 사람들을 골고루 接觸하여 그 音聲을 識別해 내야 하며 현재의 상황을 몸에 익혀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현대와 이 사회의 具現者로서 속기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대적 감각에 남달리 예민해야 할 것이고 사회의 공기를 呼吸하는데 민첩하여 이것을 그의 思想과 活動을 통하여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 요청된

다. 實로 속기사라는 한 인간이 그 사회와 문화의 尺度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마치 경찰을 「民衆의 지팡이」라 부르고 국회의원을 「選良」, 記者를 「사회の木鐸」이라 하듯이 속기사는 「사회의 尺度」라 할 만하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使命感없는 직업인은 生命없는 機械에 불과하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현대의 機械文明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기계의 部屬品처럼 되어서 人間味를 잃어가고 있다. 현대인은 사명감을 잃기 쉽고 人間喪失의 비극에 떨어지기 쉽다.

속기사는 남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기계적이며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지 말고 자신의 임무를 보다 人間的인 것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分別해야 하므로 變遷하는 시대에 鈍感해서는 그 所任을 다 할 수 없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論議되어 지는 자리에서 그 過程과 結末을 남겨놓고 움직이는 우리 사회와 문화의 알곡을 쌓아 놓는 貴重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속기는 직업중에서도 가장 人間的인 특색을 유지해야 한다.

近代化라는 口號를 요란스럽게 외치지 않고도 각계 각층에 스며들어 열매맺게 하는 한 알의 씨앗과 같이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출발할 때 속기인 자신의 向上은 물론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서 받은 크나 큰 惠澤을 기억하게 되리라.

아직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만큼 속기사의 職分은 謙遜하다.

潑刺한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결코 그것이 技巧的이 아니고 率直 公正하다.

旗手를 자처하거나 앞장서서 나아가는

동처럼 화려하지 않고 직접 많은 말을 하지 않으므로 그 謙虛한 자세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다.

過激하지도 않으나 뒤지는 일도 없이 북북하고 민감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 빛나는 센스로 봉사하고 있다.

회의장의 한 자리를 조용히 지키듯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의 위치도 조용하지만 사회의 具現者요 尺度이다.

이러한 速記士像을 사람들에게 접이 주는 것도 속기사가 힘써야 할 일이다.

(本協會 顧問)

合格者名單

(第 1 回 資格檢定試驗)

○ 國文速記合格者

1級 :	崔 性 周	梁 順 喜	高 隆 繁
	尹 玉 姬	金 昶 鎭	玄 柄 高
	金 明 式	河 良 培	鄭 桂 泳
	吳 尊 根	金 成 鎬	李 賢 熙
	具 寬 謨	(이상 13名)	
2級 :	李 永 烈	具 順 子	全 在 坤
	李 貞 順	崔 元 一	洪 淳 明 (이상 6名)
3級 :	金 敬 子	崔 朝 政	朴 恩 實
	梁 瑛 淑	유 희 순	千 聖 淑 (이상 6名)
4級 :	朴 明 淑	(이상 1名)	
6級 :	李 仁 淑	姜 厚 昌	(이상 2名)
7級 :	李 晶 煥	金 惠 枝	(이상 2名)
8級 :	유 덕 수	(이상 1名)	

○ 英文速記 合格者

6級 :	金 承 燦	• 朴 승 주	• 정 인 복
	정 경 속	• (이상 4名)	
7級 :	朱 瑛	• (이상 1名)	
8級 :	金 寅 榮	• 趙 英 實	• 金 교 힌
	李 愛 蘭	• 明 錦 子	• 李 貞 甲
	桂 英 福	• 宋 敬 淑	• (이상 8名)

第1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을 끝내고

資格審査委員長 韓 鍾 烈

지난 1970년 5월 17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全國 第1回 速記檢定試驗을 本協會가 主管 朝鮮日報社 大韓商工會議所의 後援으로 施行한 것은 우리 速記界의 또 하나의 前進를 뜻하는 것이었던 바 그간 여러 速記同人들의 激勵와 協助에 再三 감사를 드린다.

첫째 이번 第1回 資格檢定 시험의 志願者數는 한글 速記部門 54名 英文이 32名으로서 첫번째 實施한 탓인지 比較的 應試者가 적었다.

그러나 한가지 特記할 것은 한글 速記에 있어서 上位級數인 3級부터 1級이 總志願者의 近5割에 가까운 百分率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熱心히 研究하고 速記를 다듬어 왔다는 증거이며 速記界의 앞날을 밝혀주는 현상이다.

또한 合格率 亦是 70%의 좋은 成績을 내고 있어 엘리트 出現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와 反面에 4級以下 下級數에 있어서는 志願者도 극히 드물뿐 아니라 심지어는 6級은 全無한 것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지금 研修하고 있는 速記人이 없다는 증거로서 速記의 低邊擴大가 時急함을 말해준다.

둘째 영문 速記에 있어서는 1級~5級까지의 上位級數는 志願者가 全혀없고 6~8級까지의 初步的 最下位級數의 志

願者가 全部로 되어있다. 이것은 英文速記보다도 英語實力에 緣山한 것으로 보여진다.

英文速記는 앞으로 더욱 憤發해서 上位級數에 挑戰 難攻不落의 高地를 占領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셋째 自己實力에 맞는 級數를 擇하지 아니하고 慾心을 부려 한 級을 올린 者가 試驗結果 次下位級數로 떨어진 사람이 있다. 이것은 自己分數를 지키지 않고 慾心을 부렸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는 사람이니까 人間의 慾望癖의 애교로 봐주어야 할 것 같다. 總括적으로 볼때에 우리 한글 速記는 低邊擴大를 해서 速記人口를 늘려야 되겠으며 英文速記는 더욱 憤發해서 더욱 研究努力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年齡別로 보면 20代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나라의 速記普及이 이제 겨우 20년 밖에 안된 日淺한 탓도 있겠지만 모든 學門이 亦是 20代라는 結論이 나올것 같다.

그리고 性別로 보더라도 男·女가 다 똑 같은 數字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神의 섭리로 性의 衡平의 原則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相對的이 었다.

끝으로 法式別 統計를 보면 東邦法式을 除外하고는 他法式은 人的資源이 고갈되어 간다는 印象이 짙다. 그리고 議會法式이 初創期부터 上位그룹에 頭角을 나타낸

것은 注目할 만 하고 速記界를 爲해서도 慶賀해 마지 않는바다. 앞으로 이러한 改良發展된 速記法式이 續出해서 善意의 競争을 通해 우리 速記界에 一次 躍進이 이룩된다면 本協會로서는 더 以上の 바램

이 없을 것이다. 이번 第1回 速記士資格 檢定試驗에 合格한 여러분에게 祝賀의 말 씀을 드리고 下位級數者는 上位級數를 獲得하는데 더욱 精進있이 주기를 바란다.

級數別 合格統計

級	數	應試者	合格者	不合格者	次下位級數獲得者
1	국문	17	13	4	
	영문				
2	국문	10	4	6	2
	영문				
3	국문	9	5	4	1
	영문				
4	국문	8	0	8	1
	영문				
5	국문	4	0	4	
	영문				
6	국문	0	0	0	2
	영문	6	4	2	
7	국문	4	2	2	
	영문	6	0	6	1
8	국문	2	0	2	1
	영문	20	8	12	
計	국문	54	24	30	7
	영문	32	12	20	1

年齡別・性別・國英文別統計

()는 合格者

級數 年齡	1		2		3		4		5		6		7		8		計	
	國	英	國	英	國	英	國	英	國	英	國	英	國	英	國	英	國	英
10代	男								2		(1)						2	(1)
	女	1 (1)											1 (1)	1		2	2	3 (2)
20代	男	10 (8)		3 (3)		2 (1)		6				3 (1)	2 (1)	2 (1)	1 (1)	8 (3)	24 (14)	13 (5)
	女	6 (4)		7 (3)		7 (5)		2 (1)		1		(1)	3 (3)		1	10 (5)	24 (14)	14 (8)
30代	男								1				1	2			2	2
	女																	

法式別統計

()는 合格者

級數 法式別	1	2	3	4	5	6	7	8	計
高麗	6 (4)	(2)					1	1	8 (6)
東邦	2 (2)	7 (4)	9 (5)	7 (1)	3	(2)	3 (2)	(1)	31 (17)
逸波	3 (2)			1					4 (2)
議會	6 (5)	3	(1)						9 (6)
韓國					1				1
南天								1	1
英文 (그레그)						6 (4)	6 (1)	20 (8)	32 (13)

우리의 자랑

- 速記는 文化人의 利器이다.
- 議會史의 事實記錄은 後世에 물려줄 값진 遺産이다.
- 내가 죽어 한숨의 흙이 되어도 내 손으로 記錄한 議會史는 永遠히 남으리라.
- 모든 歷史는 瞬間에 이루어진다. 速記士는 이 瞬間을 잡는 포수이다

第 1 回

全國 速記競技大會를 마치고

事業部長 申 世 華

本協會의 今年度 重要한 事業中의 하나인 第 1回 全國速記競技大會를 지난 5月 17日에 國會速記士養成所에 實施하고 同月 18日에 國會特別委員會 會議室에서 그 施賞式을 會長님을 비롯하여 全會員과 來賓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盛大하게 舉行한 바 있다.

이 全國速記競技大會는 本協會가 任意 團體였던 때인 1956년과 1957년 2回 實施한바 있는 後로 13年만에 本協會가 社團 法人으로 發足實施한 競技大會로서 이는 速記士들의 技倆을 겨루며 또한 速記士들의 資質向上을 도모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었다.

이번 競技大會의 結果를 보면 우선 正級 24名(逸波式 6名, 高麗式 6名, 東邦式 8名, 議會式 4名), 準級 10名(東邦式 7名, 議會式 3名) 計 34名の 에리뜨가 參加했는데 이들은 本競技大會實施 公告를 한 即日로부터 맹렬한 연습과 훈련을 거듭한 것으로 안다.

또한 競技種目은 演說體와 論說體의 2種이며 速度는 正級에 있어서 演說體 1分 320字 5分間, 論說體 1分300字 5分間, 辨문時間 10倍, 準級에 있어서 演說體 1分 300字 5分間, 論說體 1分 280字 5分間 辨문時間 10倍로서 이러한 基準은 지난 10餘年間 演說體 300字 論說體 270字 以

上의 高速突破는 至難한 課題로서 提起되어 왔었으며 最近 演說體만이 310字線에 이르는 程度였고 더욱이 論說體에 있어서 300字 水準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競技大會에서는 水準을 果敢히 높여 施行한 結果 無難히 이 막을 突破할 수 있었음은 人間能力의 無限함을 나타나게 된 것이며 이것은 우리 나라 速記歷史에 特記할만한 事實이라고 하겠다. 특히 演說體에 있어서 總1600字中 미스가 11字로서 0.8% 即 正確도가 99.2%라는 滿點에 가까운 優秀한 成績을 낸 速記士가 2名이나 나왔는데 이는 美國의 宇宙船 開發의 正確도와 견줄만한 成績이라 하겠다. 다만 미흡한 점은 水準을 急激히 높인 까닭으로 準級の 成績이 多少 低調하나 年年 계속 施行함으로서 實力이 向上되면 上乘되리라고 믿고 期待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이번 速記競技大會에서 거둔 成績은 正級 24名中 19名이 正確度 90% 以上이며 95% 以上이 8名이고 準級에 있어서는 10名中 4名이 正確度 90% 以上이다. 그中 準級에 있어서 昨年 탄생된 議會速記法式이 20餘年 자라온 既存 速記法式과의 경쟁에서 入賞된 것은 경하할 일이다.

더욱 이번 競技大會를 開催함에 있어 國會議長님, 國會事務總長님 本協會 會長

崔致煥議員님께서 物心兩面으로 많은 激勵와 도움을 주셨고 全會員과 國會事務處幹部 여러분께서도 積極도와 주셨음을 再三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앞으로 거듭될 速記競技大會에는 全會員의 분발과 노력으로 더욱 좋은 成績을 거두게 될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入賞者名單

	等	姓名	法式	誤字	正確度	賞狀	副賞
正 級	1	高太仲	일파	43	98.6%	國會議長賞	상패 및 金반지 3돈
	2	金基英	동방	72	97.7	本協會會長賞	" " 2돈반
	3	高隆繁	일파	77	97.5	國會事務總長賞	" " 2돈
	장려	金致元	일파	135	95.4	本協會理事長賞	" 金넥타이핀
準 級	1	최조정	동방	200	93	國會議長賞	" 金반지 2돈
	2	최원일	동방	239	92	本協會會長賞	" " 1돈반
	3	송혜경	의회	256	91.2	國會事務總長賞	" " 1돈
	장려	김경자	의회	281	90.4	本協會理事長賞	" 金넥타이핀

<말>

말은 人格의 總和라고도 하지만 요즘처럼 말이 多樣해지고 빠르고 생략되고 농축되기도 드문것 같다. 科學文明이란 현혹할 美名아래 「메카니즘」에 편승한 탓이라고 돌리기에는 무척 다른 차원을 형성해 가는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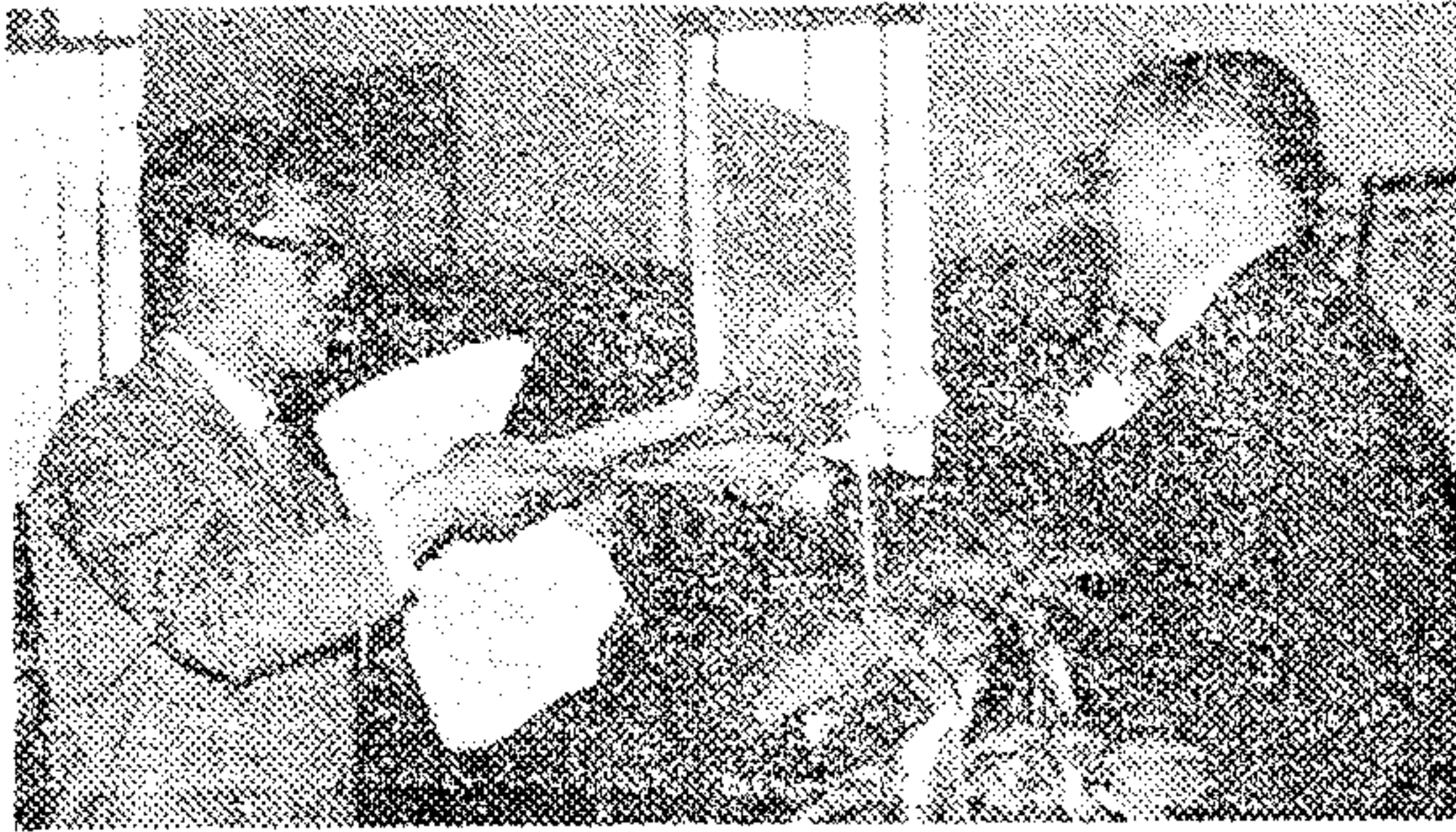
意思를 開陳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말의 妙는 힘의 對決에서 妥協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람의 심금을 울려 감화와 이해를 낳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모든 國民의 호소와 불만을 덜어주는 議事堂. 그 選良들의 一言一句를 史錄化하는 우리 速記士들. 말을 통해 必然的인 유대를 지속하는 速記인들이 그말에 민감하면서도 초연해야만 하는 二重的인 모순에 허덕일 때가 있다. 選良들의 雄辯的인 설파는 그래도 둔감하게(?) 記筆할 수 있지만 마음을 두드리는 호소와 설득력 있는 허심탄회한 말엔 누를길 없는 복돋움과 수궁, 감정을 유발시켜 그 내용에 귀 기울이다 보면 速記를 자칫 그르치는 수가 있다. 나는 생각해 본다. 그리고 自辯하는 것이다. 우리도 速記人이기 전에 凡然한 國民의 한사람이라고, 그래서 國事를 論하고 國家의 기틀을 잡는 立法과정에 대하여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한편으로 말의 위력에 경탄을 불금하진서도.....

확실히 기품을 지닌 고운 말은 고전음악처럼 사람마음의 심연을 울려 그 여운을 길게 남기는가 보다.

<澈>

더욱 精進이 있을 뿐 !



高 太 仲

약점을 이용해서 부하 장군들에게 그 많은 훈장을 달아 주었던 것이 아닌가.

나쁘게 얘기하면 미끼를 던져 주고 울가미를 씌우는 격이다.

사람이란 묘한 존재여서 무엇

에 속박받는 것을 아주 싫어 하면서도 동시에 속박 받기를 은근히 원하는 또 다른 일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특히 이성간에 이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무튼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존재임에 틀림없으나 그래도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상에 얽힌 갖가지 향기롭지 못한 얘기가 나도는 얘가 많고 심지어 그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까지도 이러쿵 저러쿵 뉘 세나는 소리가 바다 건너 까지 들려 오니 말이다.

흔히 상복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상복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실력이나 모 든 면에서 충분히 상을 받고도 남을 만한 데도 이찌 이찌 하다가 놓치고 마는 불운한 사람을 두고 주위에서 애석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위로 삼아 하는 얘기고 정말 실력이 없어서 아예 상하고는 인연이 먼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얘기다.

상은 빛이라는 말이 있다.

당장 받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그 이상의 무거운 짐이 늘 따르기 때문이다.

국민학교 4, 5학년짜리 개구장이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육박지르거나 때리는 것 보다 슬슬 구슬리고 추켜 세우는 것이다.

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공부 잘한다고 추켜주고 거기다 무슨 상장이라도 한 장 안겨보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기가순수해야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라면 오히려 역 효과다.

그 이튿날부터 당장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왜 그런가.

사람이란 염치가 있는 법이라 아무리 철부지 꼬마의 소견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질 과분한 치사에 따르는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책임이라고 하는것은 인제나 행동에 세약을 가하는 것이니까.

옛날 「나폴레옹」도 이러한 인간심리의

나는 지금까지 상이라고 이름 붙은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정근상을 한 번 받아 본
기억 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후자에 속하는
셈이라.

평소 상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치
부하고 있었는데 끝판에 땡 잡는 격으로
속기경기대회 일등이라니 아무래도 어느
면 조상의 묘자리가 이제 서서히 발복을
시작했나 보다.

기쁘다 감사하다. 계속 정진하겠다 등
등…… 수상소감 처럼 씩스럽고 판에 박
은게 또 있을까.

속기를 배우기 시작한지 어언 10년째,
옛날 자로 그으며 맞추며 호기심에 차서
배우던 일, 시험을 앞두고 여름 겨울없이

이집 저집 전전하며 연습하던 일, 네 키
에 몇배가 넘게 쌓이던 연습종이, 조그마
한 과자상자로 몇상자는 실히 되던 연필
꽂치.

그동안 괴롭고 힘겨웠던 일이 이제 없
었으랴 마는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편리
한 기능이 있어서 지나고 나서 뒤돌아 보
면 하나같이 즐거운 추억 뿐, 어느것 한
가지 소중한 간직하고 싶지 않은 게 없다

우리와 같이 고생하며 지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같이 고생하며 배운 동료, 선
배들, 그밖에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이 기
회를 빌어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번 경기대회를 주관하신 분들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國會速記課)



輪 回

李 永 烈

어둠이 신비를 잉태하고
태동을 재촉한다
장막에 가리워진 꿈속에서 꿈을 꾸며
생을 위해
씨앗은 아픔을 참는다

아스라한 태양을 갈기갈기 찢어
젖가슴 같이 보드랍게 애무할때
삶은 나를 포옹하고
나는 삶을 꾸린다

푸른하늘에 수를놓고 님 기다리던
술한
별무리는 강물에 녹아 흐르고
양상한 뼈대만이 늘어 선 길을
또
기약 없이 흘러가야 할
나그네
회여
시간은 연속되는 세월의 길잡이인가?
윤희!

會議錄作成上の問題點

△會議錄編輯者로서▽

柳炳星

1. 序 言

會議錄이라고 하면 國會에서 作成하는 各種會議錄은 勿論이러니와 其他 各種會議의 內容, 經過等を 記錄한 文書로서 그 種類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國會에서 速記를 거쳐 作成되는 會議錄에 局限하여 言及코자 한다.

國會에서의 各種會議錄을 作成함에 있어서는 많은 問題點들이 있으나 議事內容은 速記法에 의하여 記載하게 되어 있다는 點이 다른 會議錄作成方法보다 特異하므로 速記擔當者가 留意하지 않으면 안될 몇가지 問題點만을 提示하고자 한다.

2. 會議錄의 重要性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國會의 各種會議錄은 議政史의 가장 貴重한 部分으로서 또한 議員의 院內活動의 生々한 證據로서 길이 남을 記錄임은 贅言을 要치 않는 것이다. 따라서 發言者의 意思表示는 勿論이고 參考가 될 其他事項이 誤字 脫字 添加 漏落等으로 事實을 錯誤케 하는 記錄이 되어서는 絶對로 안될 것이다.

3. 問題點

發言內容은 速記士에 의하여 速記符號로 써 받아 쓰거니와 그것은 原稿化(文字化) 되어야 第三者가 알아볼 수 있으며 따라서 印刷措置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普通 發言者는 文語體의 發言이 아니라 口語體의 發言을 하며 더우기 發言內容中 表意文字를 音讀함으로써 意思把握이 困難하며 <(例)기원=起源 紀元 碁院 祈願 冀願> 或은 發音이 不正確하다든가 各樣의 「악센트」로 因한 錯誤나 誤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正確한 意思傳達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想像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第74回國會부터 人名, 地名外에는 漢字를 混用하지 못하고 特殊한 用語에 限해서 漢字를 並記하게 되어 있어 漢字를 混用할 때보다 더욱 隘路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漢字를 混用하는 경우와 韓글을 專用하는 경우의 問題點을 比較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漢字를 混用하는 경우— 一般的으로 漢字를 익힌 사람에게는 漢字를 混用한 것이 內容을 理解하기 쉬우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漢字가 아니고서는 그 뜻을 把握될 수 없는 것조차 있다. 그러나 漢字를

잘못 使用하면 全然 다른 뜻으로 解釋되므로 原稿를 作成할 때에는 發言者의 意思에 符合되는 正確한 漢字를 表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이러한 正確한 表記를 爲하여는 發言者의 意思를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는 基本的인 素養이 各自에게 必須不可缺한 要件이거니와 많은 漢字를 익혀두어야만 完璧을 期할 수 있는 것이다.

한글을 專用하는 경우—한글을 專用하면 內容의 理解與否는 且置하고 漢字를 混用한 경우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으며 原稿化(翻文)하는 경우 漢字를 使用하는 경우처럼 文字의 選擇에 神經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한글로만 表記를 하면 同音의 人名, 地名 異語가 있을 뿐만 아니라 難解語等 讀者가 무슨 뜻인지 분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漢字에 比하여 畫數가 簡單하므로 자칫 放心을 하여 畫 하나라도 잘못 그으면 뜻을 알 수 없거나 엉뚱한 뜻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輕視하기 쉬운 띄어쓰기를 잘못 하면 알아보기에 힘이 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한 뜻이 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速記를 하여 맞춤법이나 띄어 쓰기를 소홀히 한다든가 다른 文字로 잘못 表記하거나 或은 무슨 文字인지 분간할 수 없는 不正確한 表記를 하여 發言者의 意思傳達에 차질이 있어서는 決코 안될 것이다.

漢字를 並記하는 경우—國會의 各種會議錄은 人名, 地名以外는 한글을 專用하게 되어 있으나 上述한 바와 같이 한글로만 表記하면 그 뜻을 알 수 없거나 한가지

以上의 다른 뜻으로도 理解되는 것은 漢字를 並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原稿作成者마다 素養과 主觀이 다른 것이므로 어떤 用語에 漢字를 並記하여야 한다는 原則과 基準이 없는 限 混亂을 免할 수 없다. 이 原則과 基準이 確立될 때까지는 暫定的으로 所管係長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原稿를 綜合檢討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其他 留意할 點은 速記를 着手하기 前에 반드시 發言者를 確認하여야 한다. 또 速記中에 發言者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發言者表示를 正確히 하여야 하며 姓名表示는 正確한 文字로써 하여야 한다. 實際 發言者와 記錄上의 發言者가 相異하는 일이 있어서는 決코 안될 것이며 姓名을 誤字로 記錄함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間或 發言者가 引用하는 第三者의 姓名表記를 漢字 또는 한글로 任意表記하는 事例가 있으나 姓名은 漢字로 表記하게 되어 있으므로 發言者에게 事後에 確認을 하여 正確한 漢字로 表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各自가 精誠을 다한 原稿라 할지라도 主務와 副務間에 서로 檢討를 하여 誤記나 配列의 잘못이 없는지 다시 한번 相互 補完함으로써 보다더 正確한 記錄이 되도록 힘 써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平素에 느꼈던 몇가지 點을 指摘하였기니와 各自가 作成하는 原稿는 다른 어느 누구도 손댈수 없는 權威가 있으며 우리나라 議政史의 善 文獻을 自己 손으로 作成 한다는 矜持를 恒常 가지고 任務遂行에 萬全을 期하였으면 하는 것이 所望이다.

(國會速記課編輯第1係長)

手當引上의 뒤안길

理事長 李 東 一

當 協會로서는 大多數 會員이 몸 담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速記職 公務員의 手當 引上을 위하여 盡力하여왔던 바 現 1人當月 5,000원의 速記手當을 來年 1月부터 8,000 원으로 引上支給 되도록 F Y 71年度 國會 所管 歲入歲出 豫算要求書에 反映하게 되었다.

원래 速記業務란

1. 多方面에 걸친 깊고 넓은 專門知識이 必要하며 또한 雜多한 言語樣態 그리고 發言의 高速化에 對處할 수 있는 速記術의 繼續的인 研修가 要請된다.

2. 速記術의 研修에는 1~2年이 所要되며 그 研修過程이 至難하고 需要處가 制限 되어 있어 昇進 轉補의 機會가 極히 적다.

3. 一般 行政職은 高等學校卒業後 任用 試驗에 合格하면 就業하나 速記職은 高等 學校卒業後 速記士養成機關에 入學試驗을 거쳐 1年 以上 速記學術을 研修하고 卒業 試驗과 速記士 任用試驗에 合格함으로써 비로소 就業할 수 있다.

이렇듯 速記術 研修가 어렵고 處遇가 나쁘고 他職에 比하여 將來에 對한 展望이 밝지 못하여 專門職業 速記士의 輩出에 예로짐이 허다함으로 그 수효가 100名에도 이르지 못하는 現實에서 그러나 現 國會 速記職公務員中 處遇面에서 越等優待하고 將來展望이 밝은 他機關으로 轉出(63年以後 89名中 25%인 23名離職) 함으로써 國

會速記課는 有能한 專門職速記士의 養成 輩出機關의 口實밖에 못하고 있는 實情 이다.

그러하여 現 任員陣은 就任直後부터 會員의 處遇改善을 위하여 勵心하고 努力하여 前述한 바와같이 速記手當引上을 來年度 豫算要求書에 反映시키기에 이르는 것 이다.

금번 手當引上이 實現되게 된데에는 崔致煥 會長님이 親히 活動하여 주셨고 國會 運營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 幹部 여러분이 國家財政의 窮乏함과 國會내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음에도 不拘하고 速記士들의 業務量의 過多, 難易도와 議政史 記錄의 重要性 등을 理解하여 快히 引上하여 주심에 當 協會로서는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또한 手當引上을 위하여 任員陣은 勿論 會員 여러분이 自發的으로 合心協力하였음에 理事長으로서 더욱 感激할 뿐이며 이번 手當引上이 實現된 것은 오로지 國會 議員 여러분 事務處 幹部의 理解와 會員 여러분의 努力의 結實인 줄 믿는다.

앞으로 來年度 豫算 成立時까지 계속 合心協力하여 所期의 成果를 거둘것을 바라며 이러한 協同精神을 延長 協會의 모든 事業이 뜻한 바대로 有終의 美를 거둘것을 會員 모두가 努力해 주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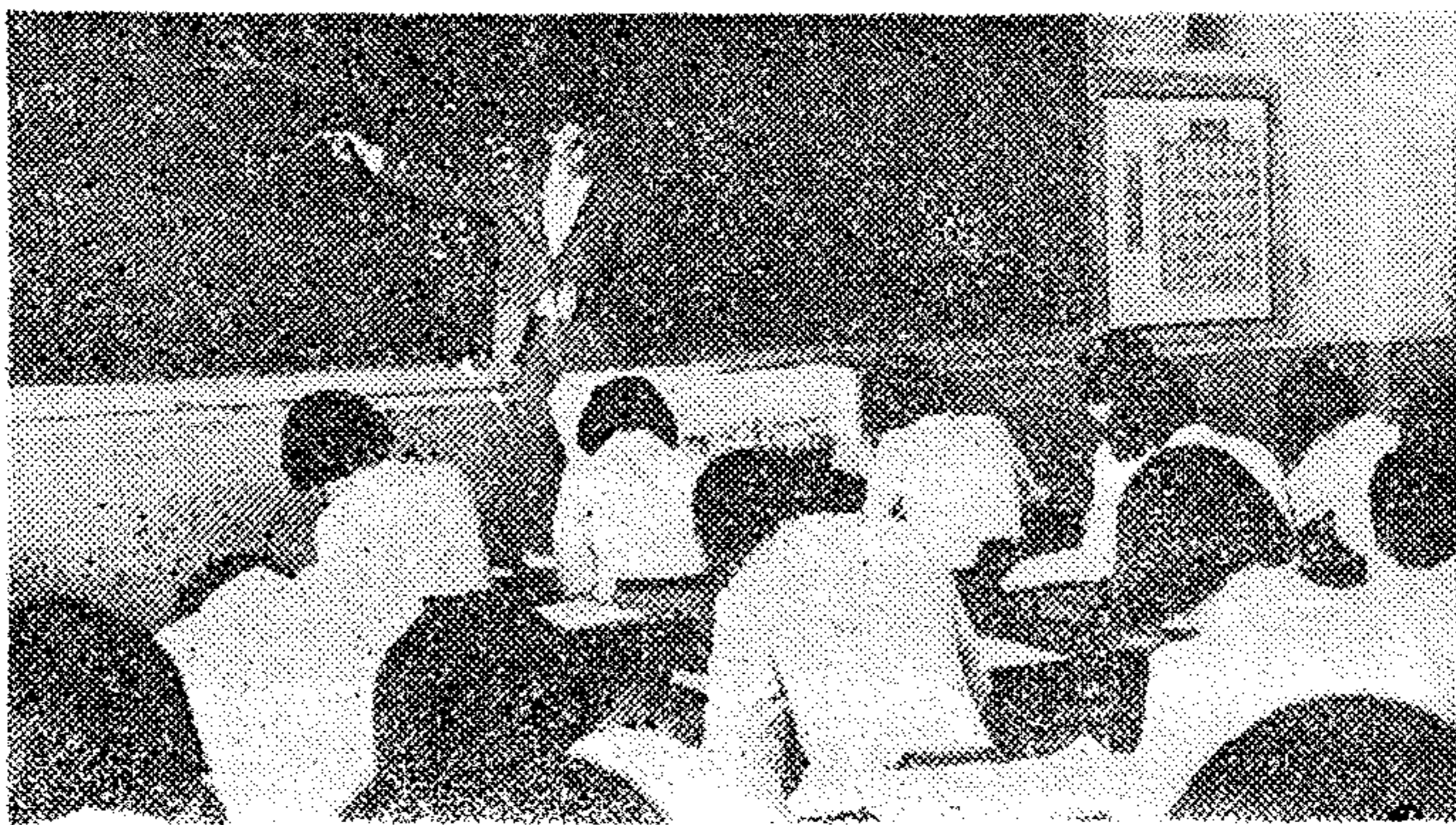
學校速記部探訪記

— 祥明女子高等學校篇 —

梁 源 龍 記

本協會 主要事業의 하나인 學校 巡回無料速記講習이 지난 4月부터 서울祥明女高와 서울敝新高에서 실시되고 있음은 이미 告知한 바 있거니와 예산상 여러가지 이

러운 與件속에서도 이 事業遂行을 위한 희생적 奉仕에 온精力을 기울이고 있는祥明女高 田興福會員의 講義現況을 宣傳部에서는 잠깐 노크해 보기로 했다.



싱그러운 6月의 어느 오후 사진부 R兄을 대동한 記者가 龍山 三角地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 상명여고 정문을 들어 서자 때마침 흘러나오는 하얀 제복의 물결속에서 고개를 숙이느라 진땀을 뺐다. 무척 발달하고 청순한 teenage 의 女學生들이 모두 얌전한 인사를 하고 지나가기 때문이었다. 亦是 33年의 기나긴 傳統을지닌 品位있는 學校라는 印像이 첫말부터 記者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全校生 1800名, 30學級이란 大家族인 이 學校의 教育目標의 하나가 實業教育으로 되어 있어 이 學校를 이끌어가고 있는 裴祥明校長선생님의 흐뭇한 人間味의 一面

을 엿볼수 있었다.

郭哲圭 校監先生의 案内로 4층 3學年 10班 教室에 들어섰다. 초롱초롱한 百

여개의 눈들이 우리를 맞는다. 教室 前面 왼쪽에 커다란 速記文字分出圖가 걸려 있고 亦是 女高生다음게 아담하고 싱싱하게 잘 정돈된 雰囂氣였다.

「週에 두 시간으론 너무 적으니 더 많은 時間을 割當해 줄 수 없습니까?」

田先生의 紹介로 登壇한 記者에게 어느 에쁘장한 學生의 첫質問이 터져나오자 우리는 당황하고 말았다.

「현재 이 學校에서는 實業教育科目으로

速記 外에 打字, 珠算을 가르치고 있어 지금 곧 速記時間을 늘일 수는 없으나 2學期부터는 많은 時間配當에 努力하겠다는 校監先生의 解明으로 가카스로 女學生들의 빛나는 눈총을 피할 수 있었다.

하여튼 이러한 女高生들의 견지한 速記熱에 記者는 一面 당황하면서 一面 흐뭇하기 이룬데 없었다. 田先生의 講義는 熱을 띄기 시작했다. 귀죽은 듯 고요속에 學生들의 연필 달리는 소리가 들기에 따라 펍 音樂的이다.

아직 基本文字의 연습인데도 한 文章이 간단한 線으로 記錄되는데 탄성이 連發된다. R記者가 마구 터뜨리는 후랏슈가 방해될까봐 기승을 부리는 R記者를 간신히

밤으로 끌어내는 신경까지 써야한 만큼 學生들의 受講態度는 근엄하고 眞摯하기만 하였다.

「……이 學校에서는 高3이 되면 進學班과 職業班으로 나누어 職業班만 速記時間을 配當하고 있는데 進學班에서도 速記科目을 넣어 달라고 아우성이어서 學校當局으로서는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라고 學校 正門을 나서는 記者에게 흘린 校監先生의 마지막 말을 음미하면서 歸路에 신 記者의 마음은 뿌듯하면서도 무언가 切實한 使命感같은 重壓을 느꼈다.

祥明女高 速記部の 보다 앞찬 發展과 이 學校의 無窮한 繁榮을 빌면서 三角地 로 타리를 뒤로 했다.

(消)

(息)

※ 國會公務員 外國議會制度 視察計劃에 따라 國會速記課第3係長 安仁榮氏가 지난6月 20日 下午 2時 JAL 便으로 渡日 約 15日間의 日本 議會制度視察을 마치고 7月 5日 歸國하였다.

※ 지난 6月 10日 美國人 英語速記士 E·F·AnderSon (58歲)氏가 本協會 宣傳部를 來訪하여 그의 韓國에 있어서의 速記職 就業 協助를 要求해왔다.

本協會에서는 協會 英文速記部 會員인 盧英民氏(東邦英文速記講師)에 紹介 그의 就業이 이루어 지도록 勞力 할것을 約束하였다.

※ 協會에서는 71年度에 벨지움·부랏셀에서 開催되는 INTERSTENO 第29次 大會 參加與件을 事前調査코자 부랏셀 駐在 文德周 韓國大使에게 現地情報調査通報를 會長名義로 要請하였다.

※ 事業部에서는 9月 開催豫定인 速記展示會 作品製作에 日益 熱을 올리고 있는데 會員여러분의 계속 協助를 마라고 있다. 現在 工程은 約 50% 進陟되고 있다.

英文速記의 展望

盧 英 民

(東邦學院英文速記講師)

英文速記(English Shorthand)란 英語로 말하는 것을 迅速 正確하게 어떠한 一定한 記號로서 받아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翻文(Transcribe)을 正確迅速히 해서 Type로 찍어서 完全히 書類化 하는데 까지로 끝이 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있는 事實이다. 그러면 上記와 같이 英文速記를 할려면 于先的으로 英語에 能通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Speaking 이라든지 Writing이라든지 Hearing 이라든지 Typing이라든지 (上記를 Fouring라 한다) 英語에 能通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生覺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技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 사람들이 大部分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잘못된 生覺이다. 이 境遇의 問題點은 後述하기로 하고 먼저 英文速記가 韓國에서 始作된 것 부터 摸索해 보기로 하자.

English Shorthand가 最初로 韓國에서 普及된 것은 지금으로 부터 17年前 Robert Park 先生이 後進 養成에 힘쓴 이래 現今까지 數 많은 "Elite"들이 그 技術을 得하여 國內에서 또는 國外에서 大學校 講義를 받아 쓰거나 Part Time Job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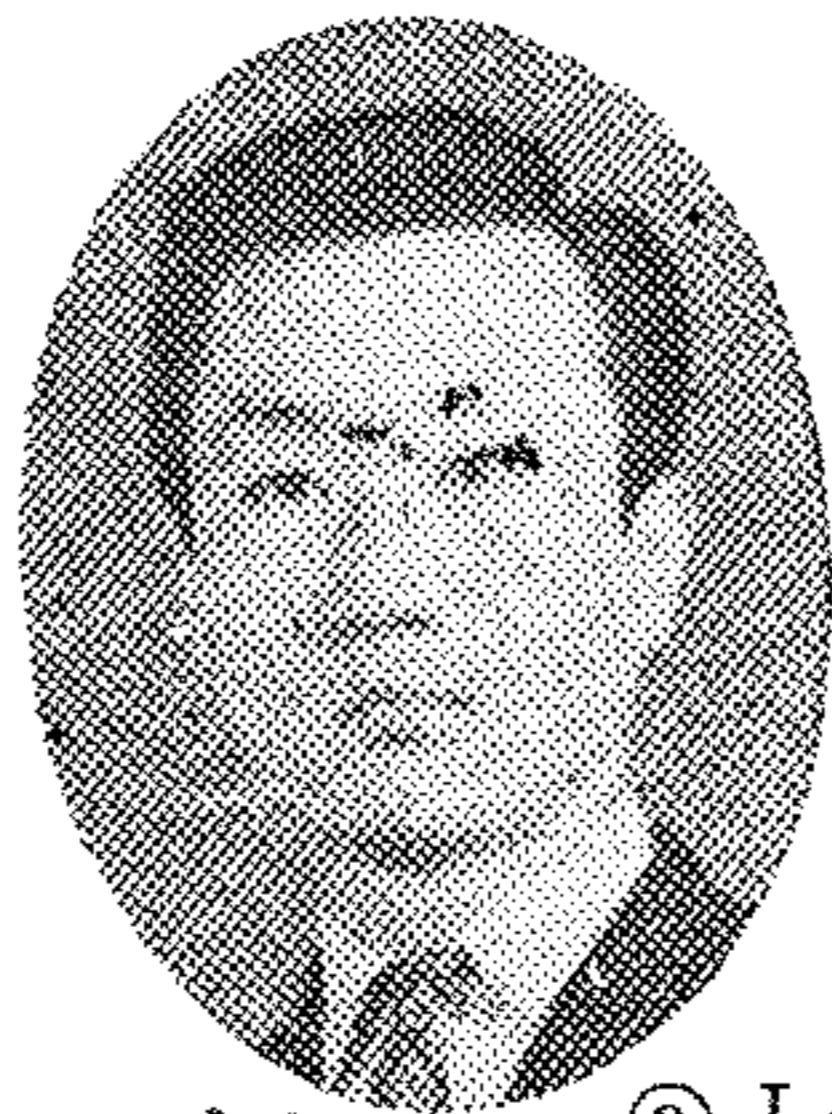
Arbeit를 하여 學費를 보태쓰거나 또는 移民을 하여 永住權을 얻거나 또는 特派員으로서 活躍을 하는等 그 活用 範圍가 廣大함은 말할나위도 없다.

一線 實務者의 한 사람으로서 그 Vision을 내다 볼 때 아직까지도 英文速記가 未開拓 分野임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음을 주지의 事實이다. 또한 이 分野를 開拓함에 있어 先進諸國과 같은 有能한 Stenographer나 Shorthand Reporter를 養成함에 있어서는 極히 難한 問題들이 山積해 있음을 또한 否認 못하는 것 亦是 事實이 아닐 수 없다.

그 代表的인 要因을 分析해 보면 下記와 같다.

- ① Language의 不通
- ② Word Power의 不足
- ③ Writing Ability의 未熟
- ④ Listening Comprehension의 未熟
- ⑤ Experience의 不足

이 외에도 많이 있겠으나 優先的으로 必要한 要素들이라 하겠다. 그러면 上述한 諸條件에 完全히 Fluent한 사람이 過然 몇 명이나 있을가를 考察해 보면 그것은 極少數에 지나지 않고 있다. 大部分의 사람들이 上記 條件에 不足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가 여기서 明示 하고자 함은 English Shorthand에는 分明히 Two Part가 있다고 함이다. 그 하나는 Steno grapher이고 다른 하나는 Shorthand Reporter이다. 그 區分을 說明하면 下記와 같다.

① Steno Grapher

普通 우리가 말하는 秘書速記士라 할수 있다. 여기에는 高速을 要하는 速記를 必要로 하지 않음은 勿論 그 話題 自體가 어렵지 않고 大端히 簡單하고 그 內容 自體가 항상 一定하기 때문에 所定の 過程을 履修한 者라하면 無難히 할 수 있는 分野이다. 現在各 外國商社의 高級 秘書로 活躍하고 있는 速記士는 바로 이 Stenographer이다. 報酬關係는 그 經歷에 따라 差異가 있겠으나 \$150부터 \$500까지로 알고 있다. 他職에 比하면 상당히 좋은 報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社會에서 對하는 待遇도 상당히 좋다.

② Shorthand Reporter…… 이 分野는 일컬어 부르기를 Court Reporter라 한다 그야말로 高速을 要하며 또한 專門分野에 達通해야 하며 많은 常識이 있어야 한다. 美國의 一例를 들면 各分野대로 政治 經濟 文化 社會 宗教等に 專門 速記士가 있어 그때 그때마다 對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程度는 되지 못하고 한 사람이 全部 다 하고 있으니 그 努力이나 그 밖에 어려운 點이 많다 또한 國內에서 速記 技術을 研磨하기 爲하여 大學校나 學院에서 修練을 쌓고 있는 學生들도 前述한 ①項이 大部分이며 ②項의 分野는 極少數에 達하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으로 英文速記의 區分이 分明히 明示 되었으리라 믿는다. 다음은 參考로 美 上院 速記

士의 俸給表를 보면 下記와 같다.

職 名	俸 給 額 <3個月分>
速記長(Cheif reporter of debates)	6,006 ⁰⁹ \$
速記士(Reporter of debates)	5,736 ²⁴ \$

上記表는 上院 發行 Reporter of The Secretary of The Senate(From July 1 1965, to December 31, 1965)의 것인바 現今은 더많은 俸給引上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 國內에서는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에서 定한 料金에 依하여 每時間當 15,000원씩 받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世界的인 International Conference가 國內에서 開催될 때 國內 速記士가 Initiative를 잡지 못하고 있음은 甚히 遺憾之事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點을 充分히 감안하여 더욱 奮發하여야 겠다.

나날이 發展하고 있는 現下 大韓民國에서 國際會議나 外國의 著名한 人士의 Lecture나 懇談會(Round Table Conference) 그 밖에 수 없이 많은 Meeting이 열릴때 마다 英文 速記士의 必要性은 매우 切迫하다.

특히 去 5月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에서 實施한 全國 速記士 資格 檢定 試驗에 英文速記도 同 協會에서 實施하였음은 여러모로 보아 韓國에 있어서의 英文速記의 發展을 爲하여 상당히 鼓舞的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一線 實務者의 一員으로서 마음 든든하게 生覺하는 바이다. 따라서 英文速記의 展望은 밝기만하다.

忍耐와 努力과 實力만 갖춘다면…… 끝으로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하며 先進諸國과 같이 어깨를 겨눌 수 있는 姿勢를 갖추기 爲하여 끊임없는 修練을 쌓아야겠음을 다짐하는 바이다.

등산과 精神勞働

崔 錫 模

各者의 個性에 따라 趣味 또한 多樣하겠지만 나의 경우 速記界에 投身하면서 始作된 趣味는 登山으로 어언 10餘年の 經驗을 쌓게 되었다. 하기가 少年時 鄉里에 서의 소 떡이고 뽕감을 장만하러 지계를 짊어지고 山에 오르내리던 가짜(?) 經歷까지 합친다면 20餘年の 登山經驗을 갖게 되었으니 꽤 古參側에 들게 되었다.

우연한 인연으로 배우게 된 速記를 1年이란 期間에 마치게 된 것은 「忍耐」에 의해서 얻어진 結果이라. 速記를 마스터하고 나에게는 하나의 武器가 생겼으니 그것이 곧 「忍耐」이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速記士



라면 거의 共通的이며 이 「忍耐」는 사람이 한 平生을 살아가는데 있어서와 登山에 있어서도 절대 必要한 武器인 것이다.

最高會議 速記士에 턱걸이로 들어가서 막 알게된 A兄의 案内로 山에 趣味를 부치기 始作하면서 日曜日이면 복잡한 都會의 騒音에서 하루만은 新鮮한 空氣를 마음껏 마실수 있고 大門을 나서면 웅크리고 큰 소리도 못 치고 박혀있던 貰房살이에서 解放되어 山길로 접어 든다. 배가고

플라치면 그늘밑 응달샘을 찾아 내 손으로 끊어 먹는 點心, 一行이 오손도손 반주 한 잔을 곁드려 登山中에 第一 즐거운 點心時間이 된다.

요즈음 國會議員을 「20萬選良」이라고 한다. 20萬中에서 當選되어 온 國民의 代辯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速記士는 全國 통털어 100餘名이다. 우리 國民 4,000萬中에서 100餘名이니 「40萬中에서 選擇된 사람」들이고 보니 國會議員보다 2

배의 back ground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國會法上 速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速記士 없이는 會議를 할 수 없고 後世에 기리 남을 莫重한 議會史를 곧

이 곧대로 記錄하는 技術을 가진 우리들 速記士야말로 矜持를 가질만한 職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10餘年の 單調로운 速記士 生活에서 벌써 倦態감을 느껴 自己職業에 滿足하지 못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世上에 自己滿足이란 있을 수 없다. 自己의 現在의 位置를 正確히 判斷하고 自己의 實力을 서서히 向上시키는데 서로가 努力하여 우리들의 發展을 꾀하여야 할것이다.

「당신의 趣味가 무엇이요」하고 물으면 나는 「登山」이라고 答한다. 國會山岳會員 170名中 速記士가 50名으로 全體의 約 30%를 占하고 있으며 各種 山岳行事に 速記士가 끼이지 않으면 일이 안되며 大小 事를 도맡다시피 運營하고 있으며 職場에 서는 출신수범하여 他의 模範이 되도록 힘 쓰며 山에서는 自然을 사랑하며 무슨 登山大會라도 열릴라치면 速記士의, 아니 國會의 名譽를 짊어지고 最善을 다 한다.

× × ×

頂上에서 담배 한가치에 불을 붙였다.

한여름의 暴陽에 20餘kg의 배낭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頂上에로의 한 발자욱을 내 딛는다. 오직 忍耐 뿐이다. 速記를 배우든 그 몇年前의 그 忍耐力으로 오직 묵묵히 오를 뿐이다. 몇고비의 苦行끝에 頂上에 서서 짧은 時間이나마 땀 흘리며 올라왔던 코스를 내려다 본다. 저 아래조게 껌절마냥 깔려 있는 지저분한 世俗을 바라보면 흥미가 없다. 맞은편 山을 向하여 야호! 웨치는 소리에 울리는 메아리를 받으며 앞으로 내려 갈 코스를 떠릿속에 그려 본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過

去와 앞으로 살아갈 未來를 생각해 본다. 많은 고난과 역경이 노도와 같이 밀려 올 것이다. 오직 忍耐로써 이 역경을 이겨 나갈 것이다.

하늘과의 對話를 나눈다.

哲學的이다.

詩想이 떠 오른다.

땀에 젖었던 남방샤쓰가 거진 말랐다.

담배 한개피가 벌써 다 타고 필터만 앙상하게 남았다.

또 걸어야지, 오직 말 없는 山을 向하여.....

× × ×

登山을 하고 부터 健康이 좋아졌고 사람을 많이 알게 되었다. (山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

또한 人間關係가 좋아지고 自然을 사랑하게 되었다.

浩然之氣와 忍耐力을 길러주고 健康에 좋고 人間關係가 좋아지는 登山을 여러분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國會山岳會 總務部長)
(韓國職場山岳人協會 理事)

「速記界」廣告料金表

1 色度印刷・1 回分の 페이지 單價

表 四・20,000원

表 三・15,000원

本 文・10,000원

※ 製版費는 實費만을 받습니다.

2分の 1 페이지廣告도 받습니다.

會員은 3割 控除해 드립니다.

但 文字廣告에 限하며 銅版使用일경우는 坪數에 따라 實費加算합니다.

낚시와 精神勞動

金 允 洙

或者는 「낚시」의 本質에 對하여 「따분한 趣味」라는 한마디로서 가름하고 아예 못들을 것이나 들은 듯 勸誘를 一蹴해 버린다. 善意로 解釋하자면 「따분하다」는 表現은 結局 停止된 狀態의 時間이 너무 지루한 運動이라는 뜻일 것이다.

頂上을 向하여 꾸준히 움직여야 하고 또 그것을 征服함으로서 喜悅을 느끼는 登山에 比하면 조용히 앉아 보이지 않는 물고기의 生態를 判斷하면서 그 입질을 기다려야 하는 낚시는 分明 靜的인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登山이 肉體的運動이라고 速斷해본다면 낚시는 情緒的運動이라고 우겨 보아도 될 것이다.

知慧보다 뛰는 體力이 主가되는 動的인 運動과 뛰는 體力보다 슬기로운 知慧와 迅速한 判斷力 그리고 銳敏한 動作이 主가 되어야 하는 靜的인 運動과의 差異는 亦是 自然의 攝理 그대로 目的하는 對象이 地上에 솟아 있으면 男性的이요, 地下에 묻혀 있으면 女性的일 수 밖에 없나보다.

3, 4年前 초봄에 筆者는 同僚速記人 30餘名에게 勸誘하고 낚시 道具 一切를 準備하여 드린 바가 있었다. 그中에서 10餘名만이 오늘날에 完全한 낚시人으로 自負

하게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애써 購入한 道具를 대수롭지 않게 轉賣하였거나 좁은 다락방에서 淺待를 받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人間은 自己에게 주어진 環境을 늘 不滿해 한다. 더구나 똑 같은 環境의 되풀이에는 窒息할 것만 같아서 때로는 制服을 벗어버리고 어디론지 훨훨 뛰쳐 나가고 싶은 心情 禁할 길이 없다. 새로운 環境을 渴望하고 職場에서나 家庭에서나 눈에 보

이지 않는 束縛을 뿌리쳐 보고 싶은 意慾求를 우리는 늘 消化하고 清算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速記人은 그職業이 他人의 作品을 그대로 複寫하는데에 本分이 있는 것이므로 創意力을 별로 發揮할 必要가 없다. 이런데서 오는 오랜 惰性은 結局 個性을 極히 消極

的인 狀態로 몰아넣고 새로운 境地를 開拓해 보려는 意慾을 무디게 만들어 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神經質的인 職業에만 얽매여 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環境은 人間이 所信것 能力것 創造하여 適應시키면 되는 것이다. 「하면 된다」는 이 信條는 人間이 自然을 克服하고 달을 征服한 하나의 指針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環



境이 決코 宿命的이거나 固定된 것이 아니라 自慰해 본다면 쌓이고 쌓여 가는 이 울분과 慾求를 消化하고 清算해 갈 수 있는 새로운 環境 새로운 境地를 우리는 開拓하고 創造해 나가는 일이 重要하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드러운 趣味生活이다. 無數한 生命의 競爭과 無數한 煩惱가 우글거리는 騷亂한 都市를 떠나야 한다. 一週日에 하루 풀냄새 나는 넓은 大地로 달려가서 논두렁을 밟으며 맑은 물가에 앉아 그 신선한 空氣와 더불어 오직 自己 혼자만을 思索하고 自我의 時間을 가져 보는 그 深奧한 境地는 옛세 동안 시달리고 錯雜해진 모든 煩惱와 倦怠를 말끔히 拂拭해 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生活에 지쳐 비틀거리든 몸매가 다시금 굳건한 姿勢로 되돌아 오면 그토록 지겹던 옛 環境이 서먹서먹할 程度로 마냥 새롭기만 하다.

筆者는 다시금 모든 速記人에게 淸詩를 勸誘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趣味生活이 必要하고 새로운 環境의 循環이 切實히 要求된다. 淸詩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情緒運動으로서 가장 平凡하고 人間生活에 融攝되기가 容易하다. 이러한 조용한 情緒運動으로서 곤두세워진 神經의 疲勞를 平行狀態로 늘 安定시켜가야 한다

始作이 半이라는 俗談이 있다. 어떤 趣味生活이건 우선 그 眞正한 本質을 把握하는 일이 重要하다. 이 本質은 곁에서 求

景하는 식으로는 把握할 道理가 없는 것이다. 「해보아서 버려야겠다」하는 消極的인 姿勢를 버리고 우선 憧憬이 가는 것이면 「기어히 해보겠다」는 積極的인 姿勢로 果敢하게 뛰어드는 것이다. 뛰어들어 보면 그 深奧한 境地를 터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不治의 重患者(한번 맛들이면 平生을 버리지 못한다는 뜻)라는 榮譽스러운 稱號가 붙게 마련이다.

卓上時計가 두個나 있지마는 鍾은 하나도 쳐주지 않거나 두어時間 後에 쳐주는 일이 許多하다. 사나운 눈초리로 時計만을 노려보지만은 옆에있는 아내의 얼굴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이때의 虛脫해진 淸詩인들의 心情을 어떻게 表現해야 좋을지?

새벽 4時 아직 어둠이 가시기 以前에 淸詩인들의 基本動作은 始作되어야 하고 그 動作如何에 따라 吉凶이 左右됨은 結局 淸詩인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오랜동안 筆者가 淸詩를 즐겨오면서 아직껏 마음 무겁게 가책을 받고 있는 일은 3年前에 있었던 金村驛 앞의 外상값 40원 때문이다. 저녁 汽車를 기다리는 동안 路費떨어진 창자를 매블리 채워주던 그 인자한 똥똥이 아줌마가 눈에 선하여 견딜 수가 없다.

올해의 所望은 越尺 두마리 뿐이다. 많지도 않은 이 가냘픈 所望이 꼭 이루어지게 될려는지…… <國會 淸詩會員>



速記의 史 (下)

副會長 張 基 泰

解放이 되자 最後의 苦悶은 누가 우리 國會의 議政史를 速記로 記錄할 것인가에 集中되었고 이것은 몇몇 速記人이 共通的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으나 그렇다고 速記人이 한테 모여 한가지 法式을 研究할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職場生活을 포기하고 우리말 速記考案에 몰두 하였다. 所得없는 困窮한 生活도 苦痛이었지만 한시가 바쁜 우리말 速記士養成이 可能 할 것인가 不可能 할 것인가가 더욱더 焦燥스러운 心理作用을 가져와 애타는 研究는 더욱 애가 타며 주야없는 불결한 窮房生活一年 (마마까지 앓아가며)의 成果를 들고 各新聞, 通信, 放送局을 찾고 政府機關을 찾은 것이 1946年 6月—그後 數個月을 養成所設立者를 求하기에 東奔西走했지만 徒勞였다. 國會記錄이라는 國家的任務遂行을 내걸고 다녀봤으나 失望은 컸다. 그때만큼 내 自身の 愚行을 自嘆한일은 없다. 食口를 妻家에 맡기고 여기 저기 寄食하는 處地보다도 그 혼한 敵産家屋 二層房하나 얻지 못하는 내 能力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련했다. 그때 萬事를 諦念하고 職業轉換을 했던들 오늘날 내 食口들이야 희생을 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自掘自墓라 할까! 別로 보람 없는 生涯를 지내는 일을 위해 허둥지둥 市內를 개미 쫓바퀴 돌듯 했으니... 아뵘든

昌信洞 산속 私設學院의 한 教室 小兒用 책상에 앉아 있는 어린 一期生들의 希望에 찬 얼굴들, 가시밭길을 무릅쓰고 未知의 將來를 開拓해보려는 그 意志에 찬 여러 靑壯年을 失望시키지 않을 무거운 責任感에 熱을 올리던 그때가 눈에 선하다

一期生이 卒業한 곳이 鍾路三街에 있는 李鍾德君 (一期生中退)의 二層 (안집마루를 통해서 기어 들어가는 三坪가량의 마루방)이었다. 看板도 鄭源道氏가 썼다. 70名가량의 一期生이 줄고 줄어 7名이 卒業했고 그後 二期生을 募集했으나 겨우 5名이 卒業했다. 都合 10名을 내기에 헛수로 4年이 걸렸으니 學院經營치고는 賞을 탈만큼(?)名經營을 한 셈이다!

只수는 40이넘은 中年紳士인 이들이 그 환경을 이겨낸데 對한 今日的 心境은 어떠한지!

二期生の 卒業과 三期生の 募集은 數十年前에 내가 閱載禎氏를 찾던 그 場所의 近處에서 一期生の 손에 依한 것이며 三期의 楊宇鎭이 6,25前 내 집이며 學院을 꾸민 新設洞구석을 찾은지 얼마안되어 6,25 兩侵이 勃發한 것이다.

이제 三期 통털어 現職이 6名, 참으로 變貌 甚한 現實이다.

解放前부터 내가 아는 言論人으로 速記를 가장 理解해 주시는 이는 趙容萬氏(現

高大教授) 郭福山氏(現中大教授) 李海暢氏(現梨大教授) 現 李元榮議員 趙豐衍氏等 諸氏가 계시고 故人으로는 咸仁基氏 全弘鎭氏 金億氏 등이 계셨다. 近日 朝鮮日報副社長 劉鳳榮氏도 理解가 깊으신 분이다.

오늘날 내 個人으로 볼때 平生을 건 速記文化運動에 對한 社會的報答이란 如何間에 내 後輩들 마저 내 前輩을 밝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 心情의 知己的 弟子亦是 몇名이나 될지 未審이지만 그래도 速記는 普及되어야 한다는 내 所信은 速記人이면 同意할줄 믿는다.

× × ×

傀儡의 南侵으로 釜山에 行政機關이 集中되었던 1952年 봄 釜山 西大新洞에다 當時 大韓軍警援護協會長 鄭濬氏는 技術學校를 세웠다. 速記科 A班이 逸波式 B班이 高麗式을 教習했는데 5個月間의 敎學으로 中途에 끝났다.

그 當時 逸波式 速記士들의 釜山에서의 普及 내지 實務面에 공한 活躍은 速記士輩出上 劃期的인 土臺를 이룩했는데 그 主要멤버는 鄭源道, 金鎭基, 張惠根, 柳浩龍, 韓奎勳, 李鍾鎬, 楊萬鎭, 吳潤玉, 等이었고 李圭洪이 軍에 있었다.

當時 國會速記學校가 卒業年限이 1年이었는데 이것은 技術敎育을 沒理解하는 行政機關의 學制에 起因한 것이요, 이 廢斷이 오늘날까지 持續되어 많은 後輩를 中途에서 脫落하게 하는 結果를 빚어 내고 있는 터인데 速記敎育上 深刻한 문제가 야닐 수 없다. 速記敎育에는 두가지 方法이 있다.

하나는 短時日에 記號의 暗記정도로 講義를 마치는 것과 10分間에 3200字 쓸 수

있을때 까지 敎育期間을 延長하는 것이다.

前者는 專門速記士養成이 目的이 아니고 速記人口의 底邊擴大를 目的이 있고 後者는 技術者輩出에 그 主目的이 있는 點인데 後者의 경우 養成機關은 自體收入으로 維持를 해볼 생각은 조금도 念頭에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速記士도 2種이 있다. Stenographer와 Reporter가 그것인데 우리나라는 70年인 今年에 들어와서 Stenographer的인 敎育段階에 들어 섰다고 筆者는 보고 있다.

아뭏든 職業速記士의 養成을 期限付로 했다는 點은 世界에서 韓國에만 있는 奇現狀이다. 要컨대 秀才만 就務된다는 式의 敎育이었다.

在釜時는 速記學生의 大部分이 生死의 岐路를 突破한 싸움터의 傷痍勇士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每日 每日의 生計를 國家에 依存하고 있는터이어서 衣食住學의 4者를 兼했으니 豫算不足으로 中途에 그친 것은 유감지사였다.

當時 全班 班長 金日九는 氣合術의 所持者이어서 西面 某學校(서울식의 朴喜善이 있었다.)에서 速記아닌 氣合術을 해 보인 그 報酬로 影島다리 근처에서 불고기를 滿腹했던 일도 있었고 麥飯에 고등어가 主食이요, 멩게 안주로 淸酒를 킵으로 마시던 그 時節 時事通信이 速記의 德을 특특히 보던 그 時節이 어언 20年前 일이다.

還都後 나는 내 學院을 못가진 채 時日을 보내다가 公報部를 잠시 거쳐 善隣商高에서 3年 梨大에서 數個月間 講義에 臨

했으나 1週 2時間으로는 到底히 進展을 볼 수가 없었고 自由黨時代,

그러니까 參議員發足 8個月前 鍾路 3街에 있던 서울經理學院 (辛은선氏)에다가 大韓速記學院을 併設했으나 結局 練習時日이 짧아서 別 成果를 못 봤으며 그後 社會部直營 서울職業補導學校에서 1年을 지내는중 5·16革命으로 中斷 마치 賣藥 行商人과 다름 없는 그러한 處地였다.

67年 겨울에 實用速記發刊을 위한 作業에 착수 69年 5月 初版이 刊行되어 60年代에 내 收穫이란 이것 뿐이다. 하니까 市販書冊의 發刊이 70年代를 向한 速記界에 어떠한 躍進을 일으킬 可能性을 內包한 韓國速記界의 快事가 될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未知의 일이다.

大邱 射一洞에 있는 松園文化社 (鄭英培氏)의 出血로 이루어진 이 書冊에 대해 勿論 社會는 冷待를 잊지않고 있는 것 같다. 同人끼리 自祝會도 없을 만큼 現實은 冷酷하다. 入虎穴해야 得虎兒란 말과도 같이 50이 넘어 다시금 教鞭을 잡아야 하는 아니 教鞭을 잡을 곳을 物色交涉納得시켜야 할 70年初의 韓國의 速記界에 處해 가장 時急한 일이 高校2年부터 卒業時까지 2年계속 1週 2時間 教育으로 大學에서 利用할 수 있는 實力者가 되게끔 先驅的 役割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職業速記士도 나오기 수월하고 社會에 進出할 경우 活動이 클 것임은 不問可知일 것이다.

한편 理智的인 秀才들의 結合體인 協會亦 和氣있는 團結이 아쉽다. 權孝燮氏의 積極的인 後援아래 再發足한 協會가 보다 더한 前進을 위해서는 同人끼리의 和合과 더불어 事業面에 있어서나 任員構成面에

있어서나 劃企的인 改革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흔히 展示的效果를 노린 式의 事業이란 그 時機가 이미 盡했다고 나는 본다. 速記의 뜻과 記號構成의 說明으로 速記人은 絶對로 輩出되지는 않는다. 要는 必要性에 對한 個個人 學生의 切感이 일고 한편 速記의 利點이 社會職場生活에 紐帶되어 있는 그 實利的인 面을 既存 各機關이 覺醒하게끔 되어 大學은 新入生에게 社會는 新規採用人에게 對한 要望事項으로까지 發展되지 않는한 速記普及은 제자리 걸음을 不免할 것인데 이點이 重要的 點이다.

協會는 오직 이러한 분위기 助成에 事業의 重點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에는 職業速記士에 對한 待遇改善이 앞장서야 하는 터이요, 그 본보기가 國會速記士에 對해 배풀어져야 하는 터인데 이點 國會當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있으니 千萬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協會는 行政府나 社會各機關에 파고 들어 速記奉仕를 통해 그 實利를 體得시켜야 한다. 速記가 重要하다는 展示나 冊子는 事實上 實績을 올리기에 는 힘이 弱하다. 直接 行動으로서 認識시키는 것이다. 速記利用學生이 한 學科에 몇名씩만 끼어 있어도 速記의 「뽕」은 그 樣相을 달리 할 것이다.

× × ×

險惡한 山길은 아직도 連綿이 이어져 있다. 이것이 逸波가 앞으로도 계속 默默히 걸어야 할 길이다.

(逸波法式 速記創案者)

外國速記界視察記(下)

— 東南亞를 돌아보고 —

鄭 源 道

泰 國

싱가폴의 하루밤을 보내고 12日 16時30分 싱가포르를 離陸 泰國首都방콕에 18時30分(約 2時間)에 到着하여 「페니 쉬어라 호텔」에서 旅裝을 풀었다.

泰國은 1957年과 58年の 두차례의 革命後 58年 10月 憲法이 廢止되고 立法府는 解散되었다. 59年 1月 臨時憲法에 따라 制憲議會가 設置되었고 憲法起草任務가 賦與되어 長久間의 審議를 거쳐 1968年 1月 同議會에서 表決採擇되어 國王의 認准等 節次를 거쳐 公布되었다.

1968年 6월에 上院이 構成되었고 1969年 2月 下院議員 219名이 總選舉에 依해서 選出되었다.

泰國은 타놈首相이 領導하는 政府로서 外交面에서는 反共 親西歐 UN 中心政策을 통한 友邦과의 親善關係의 增進에 努力하고 ASA 의 中核勢力의 國家이다.

言語는 泰國語가 共通語이고 特別히 눈에 띄는 것은 寺刹이며 佛教가 國教이어서 그런지 많은 佛教信者를 볼수 있었다.

翌日 (4月 13日) 水上市場을 求景하러 떠나려는 차에 通譯人으로부터 색다른 留意事項을 들었다.

오늘부터 3日間은 泰國의 名節인데 儀式의 하나로서 祝福을 주는 表示로 물을

끼얹을 터이니 怒하지말고 感謝의 表示를 하라는 것이었다. 조금後「호텔」女從業員들이 컵에 물을 가져와 우리가 合掌한 손위에다 물을 뿌리며 happy new year 라고 하였다. 이런 程度로구나하고 떠났는데 거리에는 물통에 물이 가득이고 江 兩편에는 비닐봉지에 물을 가득 넣어 맨것이 수두룩 쌓였고 數百의 兒童과 婦人들이 배를 가운데 두고 俠攻을 하기 始作 나중에 無防備狀態로 目的地에를 가니 물에 빠졌다가 나온사람 흡사... 外國人으로서 是特히 婦人으로서는 딱하기 짝이 없었다. 좋은 民俗儀式도 程度가 너무 지나치니 不快하기 짝이 없었다.

이 名節의 德을 보았음은 王宮이 開放되었고 5屯의 純金佛像과 에머랄드의 高貴한 佛像이 있는 佛堂에 들어가 볼수 있는 機會를 얻었던 것이다.

泰國의 貨幣는 「바트」로서 美 1弗에 20 바트의 換率이었다. 各種寶石과 金銀의 天然資源이 많은 곳이라 金製品이 많고 王宮의 기둥은 金を 부어서 만들었으며 에머랄드佛像의 壇을 둘러싼곳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치 寶石으로 繡놓아 있었다.

홍 콩

14日 10時半에 방콕을 出發 14時 50分 4時間만에 東洋의 人種市場 香港에 到着

하였다.

홍콩은 大陸地域과 섬地域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우리 領事館은 섬地域에 位置하고 있었다. 比較的 建物들은 高層建物들이 山頂에 까지 솟아 있었으며 自由貿易港이어서 各國의 商品等이 많이 去來되는 商業都市이며 싱가포르와 같이 中共系의 宣傳物과 銀行 百貨店等이 있어 우리 一行들은 言行에 많은 조심을 기우렸다.

中國

16日 15時半에 홍콩을 出發 臺北에 17時 約 1時間半만에 到着 <원자>호텔에서 旅裝을 풀었다.

東洋에서 가장 오랜 歷史를 가지고있는 中國이고 해서 速記文化는 얼마만한 發展을 했는가를 알고자 한것이 이번 旅行의 큰 目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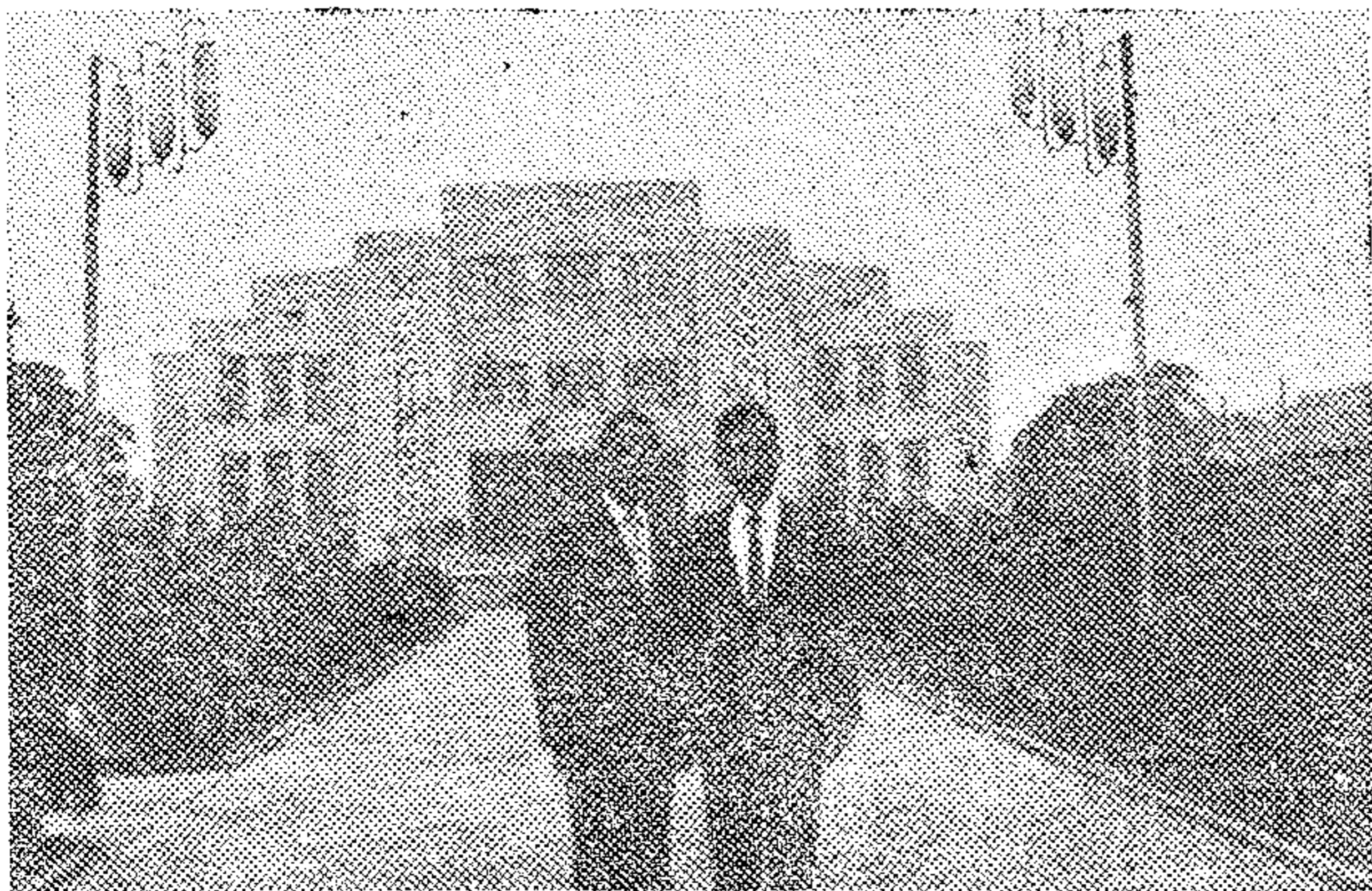
일찌기 臨時政府가 中國大陸에 있을때 亡命要人中에서 速記를 創案한 분이 계셨던 것은 잘 아는 事實이고 中國의 言語나 文字가 表意文字로서 漢字音 하나하나가 獨立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있고 우리 나라의 文字나 速記는 表音表意를 調和하고 있어 모든것이 便利하게 研究되게

되어 있어 여러字를 한 線(速記文字)으로 줄여서 略字化할 수 있는데 反해 한 음 한 음 다 表記해야 한다는 問題點等을 알고자 17日 15時에 中國議會를 訪問하였다. 李鍾毓(駐中大使館)先生께서 바쁘신 中에도 特別히 時間을 割愛 通譯을 해주신 고마움을 紹介하며 中華民國立法院簡任 速記長 江浩先生과 實務者 王朝春氏等과 來賓室에서 一問一答式으로 對座하게 됐다.

中國議會에는 本會議와 11個常委 그리고 特委가 있고 모든 會議는 速記士가 記錄을 한다. 速記士의 數는 17名으로서 各常委에 1名씩 配置하고 本會議에 6名을 配置하여 交代로 速記를 한다고 한다.

특히 反文(翻文하여 原稿完了)이 翌日된다고 하기에 具體的으로 速記時間과 反文에 所要되는 時間等을 맞추어 보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一音一字 完全速記가 아니라 要旨만을 拔萃한 會議錄을 만들어놓고 간혹 委員會의 要求가 있는 發言은 發言대로 速記文을 만들어낸다고하니, 研究의 對象이 못되었으며 中國議會制度는 國民大會에서의 決定을 그대로 議決하는 程度의 運營이라고 듣고, 會議의 眞摯性이 우리와 달라서 간신히 理解가 갈 정도였다.

現在 使用되고있는 速記法式과 速記士養成實態를 問議한즉 各自 特殊한 養成機關에서 배우고 教育하는것이 아니고 實業學校에서 速記를 採擇하여 教育하는 學校가 있어 여기에서 後輩를 길르고 있다고 하며 法式도 社會에서 要求되는 需要가 活



<中華民國議事堂앞에서 中國速記士와>

潑치못한지라 現存法式 1,2個程度로 새롭고 創意的인 法式의 考察과 普及을 하고자하는 熱意가 없음을 알수있었다.

反文時間은 速記한 時間에 約15倍乃至 18倍가 所要된다고하며 縱書로 原稿를 作成하고있었다.

議事堂本會議場은 우리나라와 構造가 비슷하며 中央에는 議長席 前列에는 議員席을 向하여 右側은 政府閣僚席 左側은 議事に 從事하는 職員席 (速記席包含)이 있다 各常任委員會는 各己 固定配置된것이 아니고 1,2,3,號會議室이 있어 隨時로 會議時에 號室을 配定하여 한다고 한다.

圖書室이 옆에 있으며 休憩室도 具備되어 있었다.

翌日, 僑胞몇분의 말을 들으니 中華民國은 統制가 甚하고 反共은 우리나라 못지 않게 強하다하였고 市街地나 遊園地 등에서 보니 페인트로 莒在忘母, 大陸奪還等 標語가 特出하게 눈에 띠었다.

農村은 2毛作은 普通이나 政府施策이 2重穀價制를 써서 農民生活이 富裕하여 大概是 農産物을 運搬하는 自動車를 갖고 있었다.

機上에서 본 臺北의 江물빛은 黃色이 짙었으며 氣候도 우중충했다. 맑고 푸른 하늘과 청청한 노들江물을 나의旅行中 볼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天賦의 고마움을 다시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貨幣는 元貨를 使用하며 換率은 美 1弗에 40元의 比率이다.

日 本

19日 9時半에 臺北을 떠나 4時間만인 13時半에 東京에 到着하였다. 日本議會에서의 速記分野는 金鎮基氏가 既 報告하였으므로 本人은 歐美各國에서 使用되는 機

械速記에 對해 알고져 翌日 日本最高裁判所 書記官研修所를 訪問하였다.

建物は 新築 3層으로 長이 約 100米쯤 되며, 넓은 運動場을 갖고있었다.

學生數는 1,2學年 各 30名으로 60名이었고 寄宿舍와 娛樂室 研究室等 豪華스러운 教育施設이었다.

機械速記에 對한 說明을 들을적에 나는 우리도 如何히하면 우리言語에 맞게끔 研究해 낼 수 있을 餘地가 있을것인가를 念頭에두고 들었는데 日本의 文字가 51字라는 좋은 條件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文字는 初聲中聲 終聲의 變化로서 數百字가 되니 困難한 點이 우선 떠올랐었다.

다음으로 手筆速記보다 機械를 使用한다면 어느程度 能率的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研修所에서 機械速記生을 選拔할때부터 適性을 알기爲하여 4월에 入學할것을 前年 11월에 倍數의 候補生을 教習시켜가지고 知能指數와 身體(특히 손놀림)의 適格與否를 試驗하여 選拔한다고 한다.

手筆速記도 多少의 適性關係의 試驗은 必要하나 大體로 普偏性을 지닌다고 보겠으나 機械速記는 特殊性이 要한다는 것이다.

機械速記는 規則的이고 相互間에 解得할수 있는 長點이 있고 手筆速記는 速記를 한 當事者만이 알수있는 短點이 있으나 速度에 있어 加速을 할 수 있는 素地를 갖는 長點이 手筆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기계속기는 單語를 大部分 따로이 暗記해야되며 수필은 單語를 暗記도 해야되지만 應用해서 速記하는 것도 적지 않다. 故로 前者는 어떤 專門分野에서 固定的인 任務에는 特効하나 手筆만큼 全般的인 記

錄에는 많은 努力이 든다고 보겠다.

社會가 發達됨에 따라 專門化하고 分業化되는 것으로 우리速記도 分野別로 速記擔當者가 있게 된다면 하루빨리 機械速記를 創案하여 여러 部門에서 活用될수 있도록 努力해야 되리라고 믿는바이다.

旅行을 통하여 불적에 速記의 發達은 議會를 中心으로 發展普及되었다고 봐도 過言이 아닌상싶으며 그나라의 議會의 制度가 民主主義的인 議會의 權能을 어느만큼 다 하고있는가에 따라 速記도 意慾的으로 자라나며 認識을 받을 수 있다고 보

았다.

上記한 國家의 議會의 運營은 우리나라의 議會制度에 비해 客觀性을 內包하고는 있다지만 뒤떨어진 現象으로 그로 因하여 速記面에서도 取擇 할만한것이 별로 없었다.

끝으로 本人의 旅行에 있어 많은 協助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現速記第2係長·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 研究幹事)

<헌 시>

— 스승의 날에 —

장 속 경 드림

또 하나의
나이테를 잉태하기 위해
나무는 안으로 영글어 가는
오늘.
삼가
스승님께
이 작은 마음을 Utopia를 向한
댓으로 올립니다.
도란대는 소리따라
산 기슭에 오르면
신록의
푹푹한 싱그러움이
풍기는 곳
거기,
아직은 스승님들을 기두려
原始의 裸木으로
서 있습니다.
유전이 흐르는 곳이라면
즐거움은

슬픔속에서 솟고
슬픔은
영광된 철학으로
오월 하늘에
신록에
가슴에
자리할 것입니다.

선생님!
스승님의 아픈 피 흘림과
염원은
그
영광이 열려줄 유전과 함께
세월의 室內에서 샘솟고
스승님의 값진 잉태욕구로
저희나
또 하나의
나이테를 꾸리기 위한
祈禱를 올리는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선생님.

1970. 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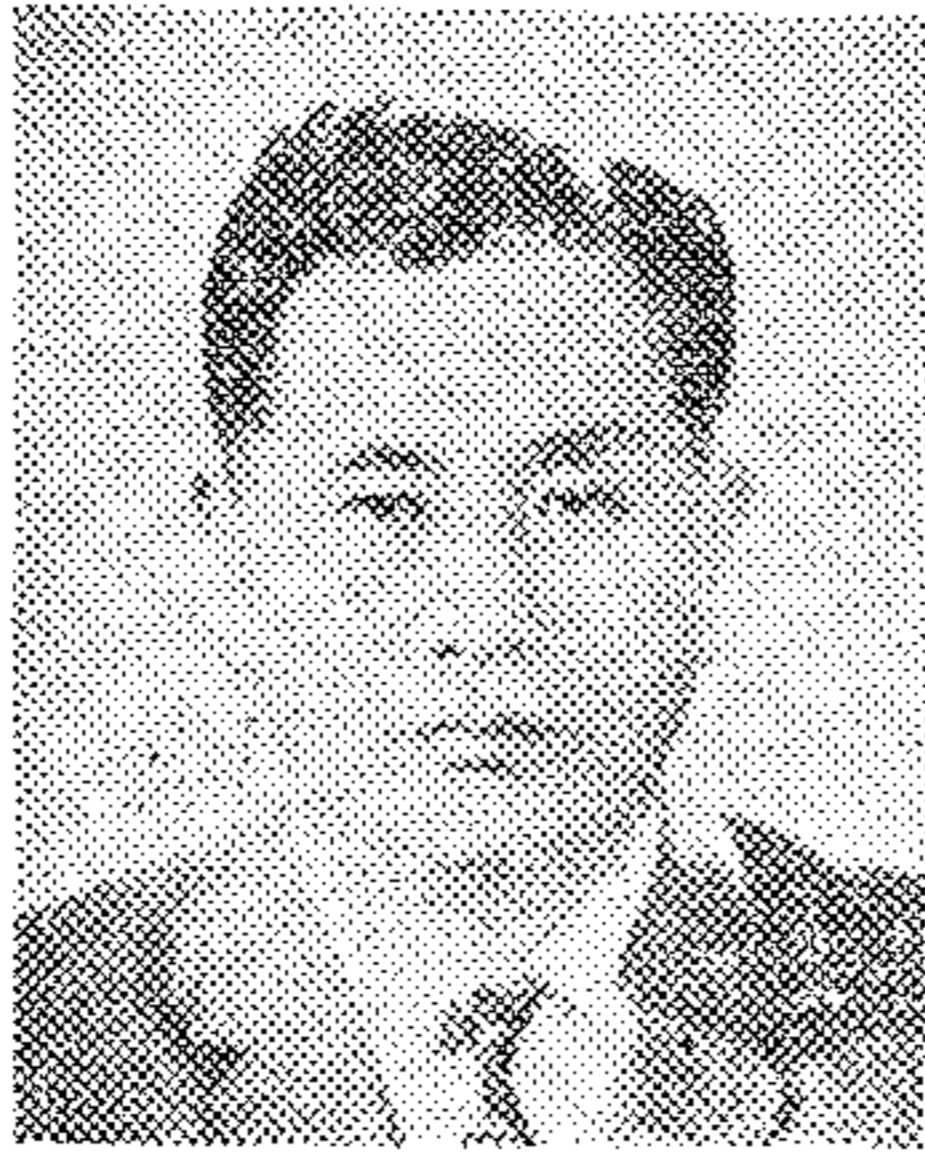
(국회 속기사 양성소)

速記國人記 (上)

姜 駿 遠

◇ 速記國의 誕生

우리 나라 速記界도 이제 成年期에 들었다고 보아 異論이 없을 것이다. 醫學界를 雅稱하여 刀圭界라고 하듯이 速記界도 그런 무슨 雅稱이라도 지어 自他가 부름직한 때도 왔다고 본다. 한글 專用時代이니 한글로, 또는 壯重하게 漢字語로 (?) 등 생각해 보다가 速記人口도 제법 늘어난 이지음이니 萬機公論에 붙여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글을 쓰기 위하여 速記國으로 假稱하여 본다. 速記國人記라면 띄어쓰기에 따라 速記國의 사람의 記錄도 되고 速記라는 나랏사람의 글도 되겠는데 또는 漢文法으로 之(가을지)자를 「記」다음에 넣느냐 「人」의 다음에 넣느냐로 달라지는 바가 되어 어리둥절하지만 그런대로 어름어름 兼用한 뜻임을 前提한 것이다.



그런데 速記國이란 우리나라 文化界 가운데의 한 「세나라」다. 心理學者들이 오래 동안 研究했다는 記憶術이란 冊이 速記初學者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읽어보고 本人의 法式中 基本文字 외우기에 應用해본 것이 바로 「가보마 세나라 아자(我自)도」의 9개 主子音인데 記憶術中の 託意法을

써서 標語式으로 口頭禪삼아 외우게 한 것이다. 外國速記教本에는 別로 없는 着眼이니 우리 各法式은 이런 考察을 하루 速히 (=이러한 略字는 있겠지만) 入門書에 넣어 便益을 베풀기를 비는 바다. 以下사랑방式 談叢일 뿐이다.

◇ 千里耳에 鐵帽라도

남의 말을 正確히 듣고 能熟하게 速記를 해 낸다는 기쁨은 남에게 그야말로 (=亦略字) 筆舌에 다하지 못할 「푸라이드」임에 틀림이 없다. 速記의 學者나 速記의 技能者는 이 優位感때문에 가난을 무릅쓰고 速記界를 지키고 서 있다고 하면 先進外國도 그럴까 하지만 歐美

雜誌에도 그런 言句가 비치어 있으니 東西一樣인 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의 이러한 「푸라이드」는 우선 國家議會에서 이루어진 記錄이 있다. 第1回 國會때 某某議員은 本會議席上에서 臨席速記士와 같은 말을 듣고서도 散會後에는 으레 速記課를 찾아 들어 「아까 某議員發言 좀 읽어 주었으면……」하고 請하기가 일쑤— 남은 듣지도 못한 말을 벌써 듣고 쓰기까지 한 셈이니 千里밖을 내다보아 千里眼이라고 했다는데 이진 千里

耳(?)인가 한다.

또 室內에서 帽子를 쓰는 禮法은 軍禮法에도 없는 일인데 速記士만은 國會에서는 鐵帽라도 써서 防身을 해야겠다는 所見이다. 역시 2代國會本會議때의 일이다. 論駁이 甚하다가 피가 팔한 A議員이 壇上發言中인 B議員에게 自己의 桌上名牌를 치던진다는 것이 아차 言壇下에서 速記에 熱心하던 柳某速記士의 머리에 맞아 週餘의 入院治療, 물론 議員도 議事堂內에 들어 올때는 守衛에게 携帶武器를 맡기고 議席에 자리잡는 法이긴 하지만 名牌가 凶器(?)가 되었으니…… 이리하여 무거운 참나무 名牌는 撤收되고 極히 가벼운 中空의 「플라스틱」名牌로 바뀐것은 이때 부터의 일이다.

◇사발 騷動·준비 中止

李承晚博士 執權中の 解放 10周年記念 博覽會가 1956年 여름 景福宮 뒤뜰에서 열렸을 때다. 入場券番號를 쥐고만 있으면 當時國產乘用車 「시발」을 特等賞으로 준다는 바람에 일어난 椿事一. 신문가십 欄에는 이런 要旨가 써 있다.

어느 滿朔의 中年婦人이 추첨권을 바른 손 주먹에 쥔채로 光化門(그때의 陸軍病院川邊에 있었음) 앞에서 卒倒, 가장 가까운 陸軍病院에로 急行一 겨우 깨난 뒤에 夫君이 「빨리 産婦人科로 옮기시다」하니 「애긴줄 알아요? 시발自動車を 찾아와요」하면서 「당첨표, 사발」이라고 쓴 쪽지를 내보이더라는 記事, 速記文도 「欲讀을 하든지 母音表示가 不充分하면 이런 誤讀이 일어나지나 않을지.

63年 6月13日 한국일보 「讀者의 便紙」. 欄의 投稿에는 打電手의 잘못을 呼訴한 글이 실려있다.

시골 어머니가 4일 상경하실 일이 있었다. 그러나 예정이 바뀌어서 3일 하오 5시에 중앙우체국에서 「상경중지하시오」를 쳐서 시골에 알리고 저녁에 퇴근하여 창신통집에 닿보니 「3일밤차 상경모친」이란 답전이 와 있다. 할 수 없이 집을 모르는 어머니를 마중하러 4일 새벽 서울역에 가보니 안오신다, 뜻밖에 5일 새벽에 택시운전사의 안내로 대문을 두드리신다. 「중지하시오」가 「준비하시오」로 쳐진 전보문의 착난, 이번에 子音의 잘못인데 打電符號의 類似性에서 온 것 뿐이고 速記士가 듣는 口話發音은 高度에 依하는 것이므로 그 通音性이 判異하다.

이 通音性과 高度를 잘 理解하면 速記法의 理解와 驅使에 有用한데 다음은 그 一覽表다.

- | | | |
|---|---------------|-------|
| ① | ㅏ ㅑ ㅓ ㅕ | } 單母音 |
| ② | ㅓ ㅗ ㅛ ㅜ | |
| ③ | ㄹ | } 流音 |
| ④ | ㄴ ㄷ ㄹ | |
| ⑤ | ㅍ ㅂ ㅌ ㅍ ㅌ ㅍ ㅌ | } 閉鎖音 |
| ⑥ | ㅅ ㅆ ㅎ | |
| ⑦ | ㅂ ㄷ ㅌ | |

母音이 發音하기도 便하고 들리기에 또렷함은 周知의 일이지만 우리말의 母音은 소위 「아해다르고 어해다르다」는 俗談조차 婦女子들이 쓰듯이 母音調和까지 곁들여 開口度가 높은 ①ㅏ ㅑ ㅓ ㅕ가 首位(ㅏ ㅑ ㅓ는 한글 字形으로 重母音 形式이다). ②가 ㅓ ㅗ ㅛ ㅜ로서 ①②順이 모두 母音인데 再認識이 要請된다. ③에서 비로소 子音으로 이 流音中の ㄹ, ④가 流音中の ㄴ 소리가니 소위 「ㄴ노래」도 노래 비듯이 들리는 理由가 流音인데 있는 것이다. ⑤⑥⑦은 모두 받침에서는 閉鎖되는 子音, 初發聲에서는 다음 母音과 合音되

어 本聲을 알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高度이니 電話소리로 「陳先生인지 金先生인지」 行商의 소리 「호스사료」 「고추사료」 어느 것인지 잘 못듣는 理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떠한 速記는 우선 母音을 明記해 놓고 불일이다.

◇ 當場에 朗讀하시오.

1代國會 本會議의 緊張한 어느날 — 緊急動議가 提起되고 「지금 某議員의 發言은 우리 院을 冒瀆하였으니 이를 밝혀 懲戒委에 回附코자 動議합니다」 再請 三請이 있어 成立 「速記錄을 當場에 朗讀시켜 드리겠습니다」는 議長의 進行이 있자 名手로 알려진 金某君 速記席에서 일어나 壇 큰 목소리로 懸河之調로 朗讀一席하여 問題의 「개놈의」나 「개같은놈의」나의 是非를 가려내어 波動은 落着되었는데 이 光景을 叙述한 當時의 速記誌 「속기」는 「傍聽席의 소리」라 하여 速記가 무엇을 어느 程度하는지 모르던 傍聽席에서는 「참速

記로군, 神技야 神技, 기침소리만 못쉴군!」이라고 記載되어 있다.

1947年 7月 新聞廣告에는 某月某日 어디서 누구의 主催로 行한 座談會의 速記錄中 ○○○라고 한 某의 發言은 本速記士로서 正確無違한 記錄임을 이에 再確認함이라고……, 아마 發言者와 主催者 사이에 發言內容이 발생이 된 듯하다.

65年 3月17日字 朝鮮日報 社會面에는 智異山盜伐事件 公判速記錄을 擔當判事가 「버스」에 두고 내려 찾지는 못했으나 多幸히 立會書記의 略記가 있어 裁判進行에 支障이 없게 될 듯 하다는 記事가 注意를 끌었다. (계속)

<本協會指導委員・工業韓國誌主幹>



原稿募集

다음 第3號는 9月末에 發刊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玉稿는 서슴치 마시고 8月末日까지 協會 宣傳部로 보내 주십시오.

- ✱ 表紙 그림………… 세로 가로 15센치정도
- ✱ 研究發表………… 2百字 원고지 15~25枚
- ✱ 生活記錄………… 2百字 원고지 12~18枚
- ✱ 隨筆………… 2百字 원고지 6~12枚
- ✱ 回想記………… 2百字 원고지 12~18枚
- ✱ 詩・時調, 其他 提言 등

울 안 의 M T 會

K 生

羊같은 犬公도 가두어 먹이면 사나워진다. 울안에 갇힌 그 초라한 犬公을 보고 自由로운 犬公들은 비웃고 놀려대고 약을 올린다. 諦念狀態에 빠진 그 울안의 犬公, 먹이나 배불리 주고 몸담을 껏이나 높다 랑고 편안하게 해 주면 自慰나 하고 살런 만은 그렇지 못할 때의 그 서글픔은 입은 있으나 表現을 하지 못하니 안타까울 수 밖에……

하물며 萬物의 靈長이라고 불리우는 人間을 制度라는 울안에 가두어 놓았다. 울안에 갇혀 비웃음 當하고 滅視當하는 그 서글픔과 울분은 犬公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된다.

公務員이라는 身分때문에, 理性을 지닌 人間이기에 사나워져 가는 그 성깔을 참아야 하는 運命, 쌓이고 쌓여가는 그 「게스」의 排出口는 亦是 「MT總會」라는 선술집이다.

國會速記士들의 愛酒家「그룹」인 이 MT會는 一名 「장어會」라고도 불리우며 M는 막걸리 T는 特酒, 막걸리와 特酒를 반반 섞어 마신다는 뜻에서 MT會라 呼稱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民主方式에 依하여 選出된 會長과 總務 財政 連絡이 있다. 또한 特色으로서는 한 個人의 過分한 負擔을 排除하기 爲하여 언제나 共同負擔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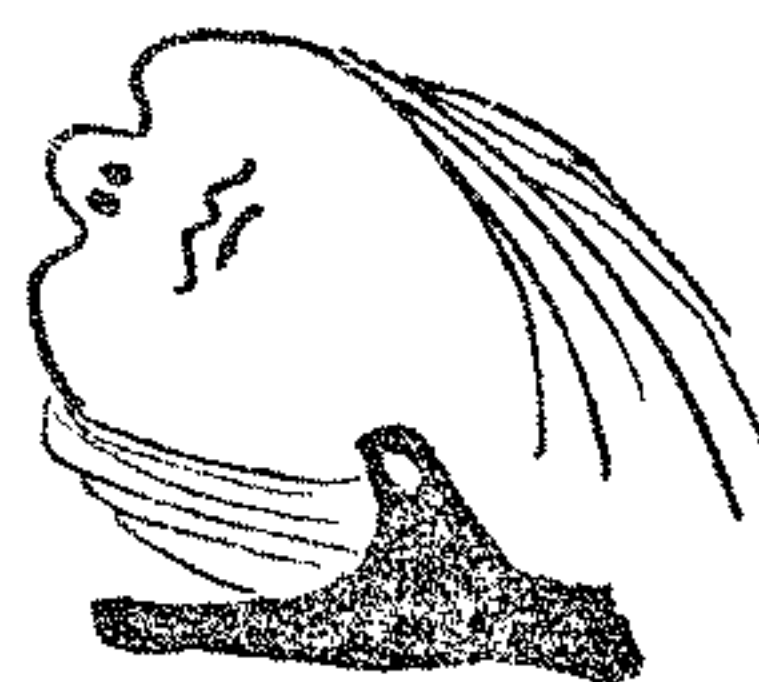
現場에서 釀出토록 되어 있고 絶對 過飲하지 않는다는 것이 不文律 鐵則으로 되어 있다.

退勤時間이 到來하면 누군가가 「××원 빵 MT總會」라는 口號로서 會長이나 總務에게 提議되고 그것이 連絡에게 傳達되면 5分內에 1係 2係, 6係까지의 全會員에게 暗暗裡에 傳達된다.

똑 같은 制服차림의 20餘名 愛酒家들이 제각기 總會場所인 「장어집」에 모여 들면 죽은개 많은 마담은 注文하지 않아도 卽刻 MT로서 調理가 始作되고 온갖 「유머」와 웃음으로서 그날의 疲勞와 모든 不快感을 散華시켜 버린다.

반반술 한잔에 장어한점으로서 이 울안의 人間들은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MT會長)



人 間

Y 生

그것은 神의 不完全品이라고 했다. 머리는 「안테나」처럼 하늘에 쭈뼛 치솟고 다리는 땅에 딛어야만 이 動物은 「시지프스」의 山을 向하여 바위를 굴러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새처럼 훨훨 날아 버리든가 개미처럼 땅속을 기어다닐 수 있다면 사람의 不完全性은 論爲되지 안 했을지도 모른다. 如何든 人間은 神의 失敗作임에는 어찌는 수 없는 모양이다.

오늘날 「아폴로」가 宇宙空間을 征服하고 마는 科學 極致의 人智가 啓發되고 있지만 人間 스스로가 가장 싫어하는 二重性格, 다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호한 精神世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人間들의 二重的 「콤플렉스」는 스스로 커다란 自己의 무덤을 파 놓고 그 무덤옆에서 慟哭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證明될 수 없는 <모호> 그것이다. 人間の 智慧가 만들어 놓은 核武器는 人間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하고 이를 어떻게 處置해야 할 것인가에 苦鬪한다는 이야기다. 다시말해서 人間을 爲해 만들어진 核武器가 이제는 人間을 害치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GIANT로 변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人間の 不完全性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의 連續이라는 것이다. 또한 二重的 精神世界는 人間の 참된 價値를 評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人間은 누구나 二重的 良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남을 위한 善의 良心이요, 또 하나는 自己만을 위한 惡의 良心이다.

人間이 어떤 極限狀況에 들어가면 대개의 경우 人間은 本能的으로 自己保護만을 하게 된다. 이는 他人의 무자비한 희생을 의미한다. 下等動物에서 볼 수 있는 本能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人間은 언제까지라도 不完全品이요, 失敗作이요, 「시지프스」山에 바위를 굴러 올리는 이리 석음을 그만 두려하지 않고 있다.



<알 림>

協會에서는 8月中 夏季無料速記講習을 實施할 計劃입니다. 例年에 따라 많은 受講生이 豫想되는 바 보다 더 效率的인 成果를 거두기 위해 會員여러분의 積極的인 協助 있으시기 바랍니다.

講習希望法式에서는 所定の 書式을 갖추어 7月30日限 協會宣傳部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傳部>

速 記 料 金 案 內

本協會에서는 速記料의 現實化를 위하여 지난 1967年 12月 1日 施行해오던 速記料金을 改正 引上 다음과 같이 施行하기로 決定하였습니다.

속 기 요 금 표

구 분	단 위	속 기 료	비 고
회의 및 강연	1 시 간	8,000 원	
좌 답 회	1 시 간	9,000 원	대 담 포 함
재 판 및 방송	1 시 간	10,000 원	
녹 음 재 생	1 시 간	8,000 원	
구 술	1 시 간	6,000 원	저술, 비서속기 등
외 국 어	1 시 간	15,000 원	영 어, 일 어

- 단, 1. 요지작성료: 「속기료」외에 매 시간당 4,000원씩 가산함.
 2. 속번역료: 「속기료」외에 매 시간당 3,000원씩 가산함.

위와 같이 결정 시행함

1970년 3월 1일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會 務 日 誌

70. 4. 3 第4次 部長會議에서 第1回 全國 速記士資格檢定試驗 및 全國速記競技大會
試驗管理委員 選任 (韓鍾烈, 申世華, 梁源龍)
70. 4. 21 第5次 部長會議에서 學校巡廻無料速記講習實施決定
서울祥明女子高等學校(田興福)
서울敬新高等學校(韓鍾烈)
70. 4. 23 2/4分期 國庫補助金申請書와 1/4分期事業實績報告書 및 정산서를 文化公
報部에 提出
釜山 速記人團體의 當協會加入要請書 接受
70. 4. 30 速記料金表(引上)印刷・配付
70. 5. 12 第6次部長會議
第1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및 全國速記競技大會日字를 5月17日로 確定
하고 試驗要綱, 競技要領, 出題, 朗讀, 監督, 採點委員選任
70. 5. 17 第1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 및 第1回 全國速記競技大會 實施
(於 國會速記士養成所 및 서울 中東高等學校)
70. 5. 18 第1回全國速記競技大會 施賞式
(於 國會特別委員會會議室)
70. 5. 20 2/4分期 國庫補助金 지령서接受
70. 5. 26 速記士資格檢定試驗 合格者通知書 個別發送
70. 6. 2 當協會에서 作成한 國會速記士手當引上에 關한 建議文案의 趣旨를 살려 第
73回 國會 第13次 國會運營委員會는 國會速記士에게 71年度부터 3,000원
씩 增額支給하도록 決議하여 政府에 要求.
70. 6. 5~6. 20 速記士資格證(書) 交付實施
70. 6. 15 2/4分期 國庫補助金 258,000원 受領
70. 6. 25 文化公報部에 아래와 같이 FY71 豫算要請書提出
FY71 歲入歲出豫算書
FY71 事業計劃書
豫算要求額 國庫 3,480,000원
自體 2,469,500원
計, 5,949,500원

<總務部>

編輯後記

- 몸은 마음이 사는 집이라고한다. 얼굴은 그 집의 대문이다. 화려한 저택에 초라한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영성한 초가에 멋있는 사람이 살 수도 있다. 이제 두 번째 내는 「速記界」지만 그 얼굴에 化粧도 해 보았고 비록 40페이지의 조그마한 몸집이지만 초라하지 않으려고 애 써보았다. 거창한 理論이 없더라도 여기엔 實際가 있기 때문이다.
-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린 느낌도 없지 않지만 좀 더 會員여러분의 協助가 있었으면……하는 아쉬움 마저 갖는다. 事實上 보다 알찬 原稿의 恐慌에서부터 이 冊이 製本되어 나오는 全過程에서 많은 隘路를 겪어야만 했다. 보다 充實한 會誌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眞正한 여러분의 「速記界」가 되어야만 되겠다.
- 特別寄稿를 해 주신 姜駿遠先生의 「速記國人記」는 紙面關係로 上·下로 나누어 이번號에는 序論格인 上篇만 실렸지만 그 分의 多樣한 回想記가 풍자形式으로 재미있게 워어져 있어 다음 號에 連載될 下篇에 기대해 본다.
- 이제 本格的인 어름칠이 닥쳐왔다. 또한 지루한 장마칠이 계속되고 있다. 7代國會의 마지막 豫算國會가 될 9月定期國會도 얼마 남지 않았다. 會員 여러분의 健鬪를 본다. (源)

季刊 速記界

<第2>

1970年 6月 30日 發行

發行人 崔 致 煥

編輯人 梁 源 龍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75) 6987 · 6940

發

祝

展

서울祥明女子高等學校

校 長 裴 祥 明

校 監 郭 哲 圭

速記講師 田 興 福

外 教職員 一同

國會速記士養成所

所 長 河 在 鳩

副 所 長 劉 龍 珪

教務主任 金 鎮 基

講 師 安 仁 榮

“ 李 東 一

“ 金 永 善

“ 崔 錫 模

“ 李 龍 洙

“ 鄭 宇 鎔

“ 金 敬 萬

庶 務 吳 壽 東